

##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17학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공고



###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자 격	2017년 불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
모집인원	사미니과 ○○명
시험과목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증명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
준 비 물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복장은 반드시 사미니 의제 착용, 구족계 수지자는 제외)
모집기간	2016년 12월부터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도착일시	2017년 1월 16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시험일시	2017년 1월 17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교 통 편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명성 · 학장 일진 · 주지 진광

모집대상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7년도 불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모집인원	○명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대학원 · 율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증명사진 2매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일시	2017년 1월 16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명성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http://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雲門寺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 · 계간] 가을호 · 통권 제138호 · 2016년 11월 11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고문 · 원법 / 편집 · 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혜수 / 편집위원 · 자욱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혜수(기울동화) / 삽화 · 혜공 / 편집디자인 · 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

# 磨門

불기 2560년

가을호

통권 제138호

磨門寺僧伽大學





## 구름문을 펼치다

- ▣ 불,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불이 아니라 가을, 겨울, 불, 여름 그리고 가을 이렇게 지금 다시 또 시작해볼까요. / 사교과 도우
- ▣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 사교과 해설
- ▣ 여름철 떠약볕과 맞선 사집반 스님들, 결실 맺은 빨간 고추처럼 남은 철도 화끈하게 살아보아요. / 사집과 동호
- ▣ 뜨거운 여름을 보내며 마음도 한층 더 잘 영글었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 사집과 대호
- ▣ 어떠한 비바람에도 꾀떡없는 신심으로써 마음의 땅을 굳히는 한 철이기를 발원합니다. / 사집과 도원下
- ▣ 불에 심은 꽃, 가을 향기로 회향합시다. / 사미니과 성경
- ▣ 오백나한님과 함께하는 가을, 모두들 기도 성취하시길… / 사미니과 자선
- ▣ 한가위의 달을 보며 우리 치문 잘 회향하길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 사미니과 자운

불기2560년 통권 제138호

가을호

# 雲門

## 목차

- |    |                |  |
|----|----------------|--|
| 02 | 호가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 04 | 죽림현            | 공양 받는 마음가짐 평성                            |
| 06 | 교수논단           | 義相『華嚴—乘法界圖』題名해설 ① 영역                     |
| 11 | 想              | 가을 유희 도행                                 |
| 12 |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선배님! 선배님! 우리 선배님! 원묘                     |
| 16 | 학인논단           | 용성 조사의 『歸源正宗』, 그 현대적 해석에 관하여 ① 원행        |
| 21 | 풍경소리           | 귀향 무진                                    |
| 22 | 기획연재           | 대웅전 다시보기 동호                              |
| 26 | 차례법문           |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혜선                            |
| 28 | 수행의 두레박 하나     | 꽃이 말을 건네 오다 선주下                          |
| 30 | 수행의 두레박 둘      | 출가 – 영겁의 세월 씨 뿌려 가꾼 귀한 열매 능가}            |
| 32 | 선배탐방           | 이 공부를 하면 멋있어요!<br>– 문수선원 선원장 현숙 스님 지축上   |
| 36 | 자유기고           | 무엇을 먹을 것인가?<br>불살생(Ahimsa아힘사)에 대한 성찰 임동규 |
| 40 | 졸업여행특집         | 앗네 왓 인디아!(고맙습니다. 인도) 혜과                  |
| 44 | 이 한 권의 책       | 왕 고따미뿌뜨라를 위한 나가르주나(용수보살)의 편지 자옹          |
| 48 | 운문논평           | 청년을 끓어앉히는 사회 편집부                         |
| 50 | 운문소식           |  |
| 51 | 등불             | 내 안의 행복을 찾아서 편집부                         |



## 공양 받는 마음가짐

명성 / 윤문사승가대학원장



〈 출가65주년기념 평전소설 봉정식 〉

매초름하고 예쁜 보리자염주를 받았습니다. 알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예뻐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운문사에는 두 종류의 보리수나무 총 28그루가 있습니다. 한 종은 일명 운문사 보리수라 불리는 조금 납작한 열매를 맷는 나무인데 19그루가 있고 다른 한 종은 천은사 보리수라 불리는 둥그런 열매를 맷는 나무로 9그루가 있습니다. 천은사 보리수나무는 몇 년 전에 운문사 인근에 있는 농원에서 그루 당 150만원씩 주고 사서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이미 성목이라 적응하는 데 힘들어 지지난해는 고 흥륜 스님이 법천 거사님께 부탁하여 매일 물을 주어 보살렸다고 합니다. 그 덕으로 올해는 커다란 열매를 맷어 우리에게 염주를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봄에 풀들이 돋아나고 나무에 어린잎이 생길 때부터 내 삶도 바빠집니다. 운문도량에 있는 모든 꽃과 나무들이 잘 있는지? 물은 부족하지 않은지? 나무와 나무가 서로 밀집되어 있지는 않은지? 말 못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자 도량을 자주 돌아봅니다. 보리수나무에게도 매일 매일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에게 공양 받은 손 안의 염주를 보니 무척 기쁩니다.

야운 스님의 『자경문』, 道를 닦는 수행자의 첫 번째 마음가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이나 맛있는 음식에 들어간 깊은 시주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공양을 받는 일은 도닦는 길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떨어진 옷이나 거친 음식이라 하여 시주의 은혜가 가벼울지라도 고마운 마음을 지닌다면, 시주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음덕을 쌓게 될 것이다. 이번 생에 참 마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한 방울의 물도 시주의 은혜를 갚기 어려울 것이니라.”

죽림헌에 있다 보면 학인스님이 흰 바구니에 공양물을 가득 담아서 올라오는 것을 자주 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마운 분이 공양물을 올리셨는지! 시주자는 우리 학인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공양물을 올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 혹은 몇 년을 고민하고 선택해서 올린 귀한 공양물일 것입니다. 공양물 안에는 시주자의 큰 소원이 담겨있습니다. 공양물을 받는 분들이 열심히 수행하여 생사 해탈하고 그 지혜를 저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귀한 공양물들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조달해야 한다면, 공부는 언제 하겠습니까? 시주자들의 지극한 돌봄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 갈을 결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주물을 받아쓰는 것을 거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시주물을 감사히 받아 잘 사용하고, 여분의 것이 있다면 때를 지나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눕시다. 넘치게 쌓아놓는 것은 복을 감하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니, 우리 몸의 피처럼 잘 순환시켜 더 많은 사람이 수용하여 시주자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합시다.

올해도 보리자염주를 공양해준 우리 운문도량의 보리수나무들에게 감사합니다!

운문사 대중을 지극정성 돌봐주시는 모든 시주자님께 감사합니다! 🎀

# 義相『華嚴一乘法界圖』題名解설 1

- 「法界圖記叢錄」을 참고하여 -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강사

## 목 차

### I. 시작하는 말

### II. 『華嚴一乘法界圖』와 『法界圖記叢錄』

#### 1. 『一乘法界圖』의 著者 問題

#### 2. 『法界圖記叢錄』의 가치

### III. 도표로 그려본 『華嚴一乘法界圖』題名 해설

### IV. 맺는 말



### I. 시작하는 말

먼저 義相<sup>1)</sup>의生涯를 알 수 있는傳記資料를 살펴보면, 신라 말 최치원이 撰한 『浮石尊者傳』<sup>1)권</sup>이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 기록되어 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이 전기에 의거하여 一然의 『三國遺事』(권4)의 「義湘傳敎」와 「前後所將舍利」(권3)에 보이는 의상에 관한 기술, 「浮石寺本碑」의 略記와 義天 集의 『圓宗文類』(卷225), 覺訓이 撰한 『海東高僧傳』의 「釋安含」條 등에 그 자료가 실려

있다. 또한 宋의 贊寧이 편찬한 『송고승전』 卷4에 略傳과 「慧悟傳」에 “相請”이라는 한 구절로 ‘의상이 해오를 초청’ 한 내용이 보인다.

의상의 속성은 金氏이고, 진평왕 47년(625) 신라의 계림부에서 韓信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원효보다 8년 아래이다. 29세에 皇福寺에서 출가하여 善德女王 4년(650)에 원효와 함께 求法하고자 했으나 도중에 좌절되었고, 그 뒤 文武王 원년(唐 龍朔 元年, 661)에 渡航하여 入唐하였다. 의상은 終南山의 至相寺에서 중국 화엄학을 형성한 智儼에게 師事하여 唐 總章 원년(668) 10월 29일 智儼이 67세로 입적할 때 까지 8년 동안 法藏과 함께 화엄교학을 익혔다.

義相이 지엄 문하에서 수학하던 시기는 662~668년 사이이다. 지엄에게 「義持」(法藏; 文持)라는 법호를 받았고 입적 3개월 전에 『화엄경』의 핵심사상을 간명하게 드러낸 『華嚴一乘法界圖』<sup>2)</sup>를 지어 인기를 받았다. 의상의 저술 「법계도」는 『화엄경』 및 「심지경론」에 의거하여 圓敎의 중요를 드러낸 것으로, 總章 원년(668년) 7월 15일에 기술한 것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sup>3)</sup> 스승의 입적 후 신라로 돌아와 먼저 태백산에 부석사를 창건하여 화엄근본도량을 열었다. 부석사에서 40일간 일승십현에 대한 문답 「一乘十玄問答」을 하였으며, 황복사에서 法界圖 강의, 태백산 대로방에서 行境十佛 강의, 소백산 추동에서 제자 진정의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한 90日 간의 강의<sup>4)</sup> 등에 관한 사실이 「총수록」에 나타나 있다. 현전하는 저술로는 『華嚴一乘法界圖』·『百花道場發願文』·『華嚴一乘發願文』·『投師禮』 등이 있으며, 『入法界品抄記』·『華嚴十門看法觀』·『阿彌陀經義記』·『諸般請文』 등은 현전하지 않는다. 의상은 저술보다 실천수행을 중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온 솔의 고기 맛을 알려면 한 점의 살코기로도 충분하다”라고 평한 一然의 말처럼 의상의 대표작인 『華嚴一乘法界圖』는 방대한 『화엄경』의 세계를 210자의 간결한 圖印에 압축시킨, 불교사상 가장 탁월한 저술 가운데 하나로 후세의 화엄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법계도」를 제외하고 현존하는 것은 전부 발원문 종류의 글로 한국에 있어서

발원문류의 효시가 되고 있다. 本考에서는 「華嚴一乘法界圖」에서 주지해야 할 저자문제와 『法界圖記叢體錄』을 통한 의상계 화엄사상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한 줄 제목 속에 전체적인 요의가 모두 들어 있으니 ‘일승법계도’ 題名 해석을 표로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려보았다.

## II. 「華嚴一乘法界圖」와 「法界圖記叢體錄」

### 1. 「華嚴一乘法界圖」의 著者 問題

『一乘法界圖』는 海東華嚴 初祖라고 불리는 義相의 華嚴思想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현존 저서이다. 따라서 한국 화엄의 주류를 이루어온 의상계 화엄학승들은 『法界圖』의 연구와 주석에 힘을 기울여 왔다. 『法界圖記叢體錄』, 『一乘法界圓通記』, 『華嚴一乘法界圖註』, 『法性偈科註』 등 『法界圖』에 대한 주석서가 신라·고려·조선시대를 통하여 계속 저술되었던 것이다. 이 법계도의 중심사상은 法界緣起로 十玄·六相·十錢法喻 등으로 緣起實相陀羅尼法을 설하고 있다. 이러한 연기설은 무엇보다 性起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성기란 60권 『華嚴經』의 「寶王如來性起品」에서 유래한 말로서 80권 『華嚴經』에서는 「如來出現」으로 번역되고 있다. 如來性의 현현을 성기라고 보는 이 부

분은 智儼(602~668)에 의해 주목된 아래 華嚴家들에 의하여 계속 새로운 해석이 가해지면서 화엄교학의 핵심 교의로 자리잡아왔다. 법계도 전체가 性起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후에 禪敎一致의 修行門 형성에 중요한 사상적 근거가 된다.

跋文에 의하면 『법계도』는 『화엄경』과 『十地經論』에 의해 一乘圓敎의 宗要를 나타낸 것으로서, 總章 1년 7월 15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총장 1년(668)은 의상이 아직 지엄 문하에 있을 때이다. 지엄의 입적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동년 10월 9일이다. 이렇게 연·월·일을 밝힌 것은 諸法이 緣生하기 때문이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緣生하는 諸法에 主者が 없는 까닭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름이 없기 때문에 『법계도』의 저자와 저술 경위에 대한 論難이 있어왔다.<sup>5)</sup> 첫 번째 의상이 지엄의 처소에서 화엄을 수학할 때, 지엄이 7언30구의 시를 지어 의상에게 주었다는 설로<sup>6)</sup> 이는 균여의 『一乘法界圓通記』에서 인용한 『元常錄』에서 주장한 것이다. 내용인즉 의상이 스승 지엄의 처소에서 화엄을 수학할 때, 지엄이 7言 30句 시를 지어 의상에게 주었다. 의상이 검은 글자(黑字)에 붉은 줄을 그려 바치니, 法性을 궁극적으로 중독하여 佛意旨를 통달했다고 치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에다 註를 지으라고 권했다. 그래서 40여 紙의 해석을 바치자, 지엄은 그것을 사르고, 60여지의 주석도 불살랐다고 한다. 다시 80여지의 주석을 지어 바

1) 문헌에 따라 의상의 '相'자는 湖이나 想으로도 쓰이나, '相'으로 쓰인 저술이 가장 많으므로 법손들은 '相'으로 통용하였다. 그밖에 「삼국유사」와 「백화도량발원문」에서는 金氏로, 「송고승전」에서는 朴氏로 되어있으며 출생과 출가, 유학시 입출국 연대의 차이가 보인다.

2) 신라·고려·조선을 통해 균여의 「일승법계도원통기」·김시습의 「대화엄일승법계도주」·유문의 「법성계과주」 등의 해석서가 이어졌다. 특히 조선시대 1789년 이전 저술로 운문사에 주석하셨던 道峯有聞의 「법성계과주」는 「法性無二相·理事無分別」로 법계를 원증하도록 한 것이 의상의宗眼이라고 피력한다. 그 후로도 참선·간경·염불의 삼문수업과 참선·간경·염불·송주·기암수호 등 오종의 수행가풍 속에서 의상계 화엄전통은 끊이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3) 「華嚴一乘法界圖」卷1 “一乘法界圓合詩一印 依華嚴經及十地論 表圓敎宗要 總章元年七月十五日記問 何故不[1]着集者名字 答 表緣生諸法無有主者故 又問 何故在年月名 答 示一切諸法緣生故.” 대경장, 45, p. 716 [1]着=著イ【原】、【甲】 「한불전」 2권, p. 8中.

4) 「法界圖記叢體錄」上2(한불전 6, p.809), 「叢體錄」上1(한불전 6, p.775), 下2(한불전 6, 834), 「三國遺事」5, (한불전 6, p.367).

5) 이것은 의상의 의도로 밝혀졌다. '이름에만 집착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이름 없는 참근원으로 환귀케 하고자 한다는 뜻과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법은 주인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 것으로 보여진다. 의상 撰(한불전 2권, p.1)

6) 전해주, 「一乘法界圖」에 나타난 義相의 性起思想

7) 「一乘法界圓通記」上, (한불전 4권, p.1)

침에 남은 글이 있어 세상에 전해졌다는 설이다. 두 번째 지엄의 73印에 의거하여 의상이 하나의根本印을 만들었다는 것으로『法界圖記叢體錄』의「法融記」에서 언급한 것으로, 지엄이 73印을 짓고 그것을 一印으로 나타내고자 하니 의상이 스승의 뜻을 깊이 해아려 하나의根本印을 지었다는 설이다.根本印이란, 해인삼매의 현현을 단적으로 밝히는 법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법계도」는 비유해서 말할 때에는 ‘海印圖’라고 불리며, 이것은『華嚴經』의 전체 사상을 해인삼매에다 집약시켜 삼매 중 험의 경지를 印圖로써 教示하였다는 설이다.<sup>8)</sup> 세 번째 의상이『大乘章』10권을 짓고 이를 다시 정리하여 ‘立義崇玄’이라 이름한 후, 불에 태우고 남은 210字로써 30句를 지었다는 설. 이는 崔致遠이 지은『의상전』의 說로서『一乘法界圓通記』에 인용되어 있다. 의상이 지엄의 처소에서 화엄을 수학할 때, 꿈에 용모가 魁偉한 神人이 나타나 의상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깨달은 바를 저술하여 남에게 宣施함이 宜當하다.”고 하였다. 또 善財가 聰明藥을 10여劑 주었고 청의동자가 秘訣을 주는 꿈을 꾸었는데, 지엄이 듣고는 “神이 나에게는 한 번의 靈感을 내렸는데, 너에게는 세 번이나 하였으니 멀리까지 와서 勤修한 果報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했다. 오묘함을 보아 얻은 것을 編次하라는 命을 받고, 의상이『大乘章』10권을 편집해서 瑕疵를 지적해 주길 청하니, 義理가 매우 佳合하나 文詞가 옹색하다는 평을 받았다. 물러나서 쓸모 없이 번삽한 곳(冗繁)을 삭제하고 四通케 한 다음, ‘立義崇玄’이라고 이름했다. 지엄이 지은『搜玄分齊』의 義를 승상하고자 함에서이다. 지엄이 의상과 함께 불전에 나아가, “言詞가 聖旨에 부합함이 있다면 燒失되지 마소서.” 結願하고 태우니 210자가 남았다. 의상으로 하여금 수습케 해서 다시 猛焰에 던졌으나 타지 않았으므로 그 210자를 계송으로 編綴케 하였다. 의상이 室門을 폐쇄하고 數夕 만에 30句를 이루니, 三

觀의 奥旨를 포괄하고 十玄의 餘美를 舉揚하였다고 하는 설이다. 네 번째 의상이『법계도』를 짓고 다시 지엄의 권유로 해석을 지어 합해서 1권을 만들었다. 體元의『白花道場發願文略解』첫머리에서 崔致遠所述本傳에 의해 언급한 것이다. 의상이 玄關을 達하여『법계도』를 지어서 지엄에게 바쳤다. 지엄이 보고는 法性을 窺證하고 佛義旨를 達하였다고 친탄하면서 의상에게 解釋을 지으라고 권하였다. 의상이 해석을 지어 합해서 1권을 만든 것이 지금 세상에 유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諸說 가운데 어느 것이 사실에 합당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법계도』의 해석[法界圖記] 부분이 의상 撰이라는 점은 일치한다. 문제는 7言 30句의 시 부분이 지엄 撰이라는『元常錄』의 설이다. 이것은『法界圓通記』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균여는 여기서 최치원의『의상전』에 의거하여『元常錄』의 견해를 반론하면서 시 부분 역시 의상 撰임을 주장하고 있다. 균여는 다시 法界圖主의 自敍에 ‘依理據教 略制槃詩’라고 述하고 있으므로 所釋詩 또 한 圖主의 自述임이 確斷된다고 하면서 방증할 필요 조차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법계도』전체가 의상의 찬술임은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함을 볼 수 있다.

이처럼『법계도』가 의상의 찬술임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문헌에서의 저술 경위를 참조해 볼 때『법계도』는 철저한 언어의 절제 아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7言 30句의 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대한 해석조차도 얼마나 언어를 절제하며 생략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법계도』는 엄격하게 절제된 언어와, 圖印으로써 華嚴宗要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술보다 수행과 교화에 열중한 華嚴行者로서의 의상의 면모와도 부합되며, 그의 실천적 性起觀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房山石經(遼金刻經, 1118~1196)》에 刻印된「一乘法界圓合詩一印」이 발견되어 저자 문제 가 다시 거론되었다.《방산석경》은 북경에서 서남

8) 불교사학회 편, 「한국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1988, p. 107 참조.

7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太行山支脈山 중의 雲居寺에 소장된 석경이다. 방산 운거사의 석경이 조각되기 시작한 것은 7세기 초(628년) 靜琬스님의 발원에 의해서이다. 그런데 「一乘法界圖合詩一印」은 12세기때에 각인된 후 보존을 위해 바로 매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일대가 중일전쟁 때 1942년에 파괴되어 매장되었던 석경이 발견되어 『방산석경』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었다. 이 『석경』에 근거하여 中國學者 姚長壽는 1996년에 〈법성계〉를 포함한 〈일승법계도합시일인〉과 〈서문〉까지도 지엄(602~668)이 자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9)</sup> 이는 한국 화엄사상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기도 하므로 앞으로 화엄에 대한 연구가 더욱 깊고 활발해져야 함을 통감하는 바이다.

## 2.『法界圖記叢隨錄』의 가치

『法界圖記叢隨錄』은 의상의 『일승법계도』에 대한 주석서로서, 의상 이후 義湘系 華嚴家들이 화엄사상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또한 『叢隨錄』에는 지통의 『錐洞記』, 도신의 『道身章』, 법융의 『法融大德記』, 진수의 『眞秀大德記』 등 신라의 세 주석서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재편집하고, 더 많은 화엄관계문헌을 발췌하여 주석을 달았다는 점이 특별하다. 그리고 義湘의 강의 기록인 『道身章』, 『智通記』, 『自體佛觀論』 등이 인용되어 있으므로 義湘의 華嚴思想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외에도 단편적이지만 『南岳觀公記』, 『崇業師觀釋』, 『古記』 등의 인용으로 신라 화엄교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총수록』에는 華嚴學僧들 중 義湘의 수많은 제자와 법손들이 보이고 있다. 의상의 직제자로서 表訓·眞定·智通·道身·良圓·相元·梵體 등, 그리고 相元의 제자인 神琳과 神琳의 제자인 法融·崇業·融秀·質應·大雲法師君 등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 眞

秀·思惟·順梵·行得·潤玄·融質 등의 신라 화엄학승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義湘系 華嚴敎學의 계승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상의 제자 가운데 十大弟子와 『총수록』에 나오는 제자를 중심으로 의상계 화엄사상이 어떠한 특징과 사상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이다. 『법계도기총수록』은 크게 『화엄일승법계도』와 『화엄일승법계도』에 대한 주석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법계도기총수록』에서는 먼저 『화엄일승법계도』의 각 구절을 세분한 다음에 각 부분에 대한 의상의 해설을 거론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여러 스님들의 주석을 첨부하여 상세한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법계도기총수록』에 인용되어 있는 出典들이 모두 성립 연대가 명확한 문헌들은 아니다. 예컨대 『大記』는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에 대한 주석서로서 『법계도기총수록』 안에서 53회나 인용되고 있는 문헌이며, 『법계도기총수록』에 언급된 문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주로 『法融記』, 『眞秀記』, 『大記』 등의 문헌이 곳곳에서 인용되어 있으며, 그 밖에 『道身章』, 『智通記』, 『十句章』, 『南岳觀公記』, 『崇業師觀釋』, 『自體佛觀論』, 『簡義章』, 『古記』 등이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특히 智儼의 저서로서 현존하지 않는 『入法界品鈔』의 한 구절이 인용되어 전하고 있는 것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엄의 저서를 비롯하여 중국의 문헌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法藏의 저서로서 『華嚴三昧觀』, 『華嚴教分記』, 『華嚴旨歸章』 등이며, 澄觀의 저서로서 『清涼疏』, 『十二因緣觀』, 『華嚴略策』 등이 인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傳奧의 『華嚴錦冠鈔』, 法常의 『攝論疏』, 神秀의 『妙理圓成觀』 등 수많은 전적들이 구절마다 인용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주석서들을 한데 집성해 놓은 것으로도 『법계도기총수록』의 문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9)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논문으로 전해주, 「一乘法界圖의 著者에 대한 再考」가 있다.

### III. 도표로 그려본 「華嚴一乘法界圖」題名 해설

과 목	문답과 記文의 예시
<p>1. 自序에서</p> <p>1) 반시를 저술한 의도 2) 시를 읽는 법</p> <p>〈표1〉 一乘法界圖印 〈표2〉 一乘法界圖構成</p>	<p>1) 시를 圖印화한 목적은 법계원융의 교리를 직관적,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봉다의 설법은 일정한 격식 없이 사람들의 근기 차별에 따라 설해지는데, 이 이치를 모르는 자들이 名相에 매달려 본래 뜻을 잃어버리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엄의 참된 근본[圓教]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제작의도이다.</p> <p>2) 시를 읽는 방법은 圖印의 중심에 있는 '法'자에서 시작, 굴곡을 따라 돌면서 '佛'자에 이르기까지 붉은 길[印道]을 따라 읽어야 한다. ◆</p> <p>〈표1〉 一乘法界圖印</p> <p style="text-align: center;">華嚴一乘法界圖 <small>〈正林中〉</small></p> <p>The diagram consists of four concentric squares. The outermost layer contains characters such as '華嚴一乘法界圖' at the top, '印道' in the middle, and '正林中' at the bottom. The inner layers contain more detailed text, including '法界' (Fa-gai), '華嚴' (Hua-Yan), and various Buddhist terms like '佛' (Buddha), '菩薩' (Bodhisattva), '法門' (Fa-mon), '圓融' (Yuan-tong), and '無礙' (Wu-eui).</p>

가을  
유희



行



## 선배님! 선배님! 우리 선배님!

원묘 / 운문사승가대학 강사

운문사 승가대학은 2,000여 명이 넘는 동문을 가지고 있다. 이 동문들은 매년 음력 8월 20일 동문의 날에 모여 모교 발전을 위한 회의를 한다. 그리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안부 혹은 눈인사를 하며, 안면이나 익하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올해 병신년, 운문총동문회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한 행사를 주선한 것이다.



제20회 동문스님들이 회장단이 되면서, “회주스님과 함께하는 운문사 총동문회 베트남 성지 순례”를 주관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행사를 주선하기 시작했을 때는 선후배가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이 웬지 불편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동참하려는 동문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동문스님 11회부터 52회까지 121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참가해서 10월 12일부터 행사가 진행되었다.

인천에서 한 팀, 김해에서 한 팀이 한국을 떠나 호치민 공항에서 만났다. 우리 일행은 우선 식당으로 가서 시원한 쌀국수 한 그릇을 먹고, 실내에 계신 대중을 한번 둘러봤다. 오우! 저쪽 테이블은 하늘 같은 선배님들, 오른쪽은 강원 생활을 함께한 선배님들, 얼굴은 한번 본 것 같은 스님들, 보기에도 풋풋한 파란사과 같은 스님드~을 이시네…….

식후 바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빈웅 히엠 사원으로 향했다. 한국말로 예불을 한 후 합동 법회가 이루어졌다. 회주스님께서는 우리는 이름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나, 불법 안에선 모두



한가족이며,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법문을 하셨다. 통역사가 나와 베트남어로 통역을 했다. 우리는 용과쥬스 한 병과 볶은 캐슈넛 한 봉지를 선물로 받았으며, 한국 측은 인삼, 운문사의 보리자 염주, 운문사에서 발행하는 안내책자 등을 선물했다. 이날은 어둑한데 베트남 스님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나오니, 구경하러 온 사람들과, 서로 1호차! 2호차!… 5호차! 의 승객을 찾는 혼잡한 광경이 꼭 담임선생님 모시고 수학여행 간 어린이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합동법회는 난빈의 최고 사찰 바이던 사원에서도 이루어졌다.

다음날 아침 베트남 최대의 삼각주 유니콘 섬을 향해 2시간가량 버스이동을 했다. 버스 안에서 가장 선배님이 대표로 일어나서 마이크를 들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당시 국수 때문에 일어났던 상하반 사이의 신경전을 밀하면서,

“우리 반은 서울 사람들이 많아, 스파게티 먹다 출가했는데, 국수가지고 섭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러자 바로 후배 스님이 일어나서, “그때는 치문 상하반이 있어서, 스님들은 겨우 6개월 선배예요” 하고 당찬 목소리로 반론을 폈다. 그러자 큰언니 같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우면서 응답한

다.“강원 때는 스님네 숫자가 많아서 세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반 모임 때 우리가 더 많이 모여” 그러자 후배스님은 응원을 청하듯 뒤쪽을 바라보며 “아이고 어쩔 수 없는 6개월, 영원한 6개월” 하며 머리를 감싼다. 제삼의 스님이 거둔다, “내사마, 여기 네 번째야, 그렇지만 동문 얼굴 볼려고 또 왔어” 선배스님드~으을!! 그 실랑이 40여년 전 일인데, 아직 진행형이군요. 국수 가락처럼 길기도 하네요. 참 재미있어요.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날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머물렀다. 이곳에서 하얀 아오자이를 입고, 전통모자 ‘롱’을 쓴 가녀린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흰 갈매기처럼 활보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거리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헬멧을 단단히 쓰고, 아오자이는 간곳이 없고 평상복에 오토바이를 몰았다. 신호등도 도로에 그어진 선도 제대로 없는 것 같은데, 좌회전. 끼어들기, 살짝 비키기, 순식간 멈추기 등의 운전기술이 자재롭게 보였다. 갑작스럽게 소녀비라도 내리면 일제히 우비를 입고 붕붕거리며 서 있는 모습이, 날아오르려고 날개 편 풍뎅이처럼 보였다.

우리는 여러 번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광경을 한번 엿보자. 줄은 길지만 앞서시라고 양보하는 호텔 뷔페식, 대나무와 건초로 얼기설기 꾸며진 지진 대비 건물 속에서 텁끼리 하는 현지식, 혹은 아름다운 경치를 품에 안고 배에서 하는 선상식. 새로운 음식을 맛봤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선배스님들은 부스럭 부스럭, 어디 있었던 것인지 비닐봉지를 꺼내 풀기 시작한다. 한국에서 싸 가지고 온 자연발효 밀반찬들이다. 그리고 할머니가 손자들 거두어 먹이듯 스스럼없이,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다니며, 각종 반찬을 나눠준다. 뿐만 아니라, 하얀 나물에는 풋고추간장, 파란 나물에는 양념간장, 튀김에는 산초간장을 알아서 척척 뿌려 새로운 즉석요리를 해주신다. 그리고 한 말씀 “이렇게 해서 먹어봐요,” 하신다. 그 따뜻한 “정”, 젓가락 끝에서 꿀 떨어진다.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세계7대 비경 중 하나인 하롱베이를





돌아보고 숙소로 돌아와, 이날 있었던 총동문의 밤이었다. 잊지 못할 추억, 이런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운문사에서는, 진달래가 피면, 학소대 쪽으로 전대중이 함께 소풍을 간다.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각자의 “끼”를 펼쳐서 대중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 있다. 이날 밤 이 “강원시절의 끼”가 폭죽처럼 폭발한 것이다. 회주스님은 빙그레 바라보신다. 스님 고개가 살랑살랑 끄덕끄덕 장단 맞추신다. 까마득한 대선배님들 박수 치고 노래 부르신다. 파랑사과스님들은 어디서 번개같이 준비했는지, 머리에 이상한 띠를 매고 있다. 테이블까지 들썩들썩한다. 훌러간 7080년대 노래 다 나온다. “우~후~ 신난다, 때는 이 때다, 나와라, 호거산 정기!! 평더쿵 평더쿵” 과거의 시간들이 봄볕에 꿈틀거리는 고사리손처럼 올라와, 현재와遭遇한 것이다. 不生不滅, 不常不斷, 不一不異, 不去不來, 우리, 후박의 향기만이 가득하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녁식사를 하면서 회향식을 가졌다. 회주스님은 특히 사전답사까지 하며 꼼꼼히 준비한 제20회 동문회장단들의 노고를 치하하셨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베트남 사찰에서 예불, 합동법회를 하는 여법한 기도이기도 하며, 물 많

은 나라에서 큰배 작은배 통통배를 갈아타는 물고기 여행, 색다른 묘미가 있었다고 재치 있는 말씀을 하셨다. 끝으로 한가지에 앉았던 새들이 아침이면 날아가듯이 지금은 헤어지고 다른 날을 기약하자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셨다. 우리 대중은 “대한 필경기”를 3절까지 부르고 “운문교가”, “스승의 은혜”를 불렀다. 이렇게 해서 5박 6일의 “회주스님과 함께하는 베트남 성지순례”는 끝이 났다. 아하! 정말 아쉽다. 어제 떠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리 눈물이 나지… 오우 콧물까지 흐르네.

선배님! 선배님! 우리 선배님! 우리 이렇게 만나길 정말 잘했어요. 선배님들은 언제나 마음이 열려 있으며,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을 이번 여행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감 넘치는 인연의장을 마련해 주신 제20회 동문회장단 스님들께 삼배 드립니다. 세심하게 흐르는 진행, 보일 듯 숨어 버리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지도력이 넘쳐요, 강원시절에 다 갈고 뒤흔 노하우인가요? 자랑스러워요.

마지막으로, 회주스님, 오래 건강하세요. 재미있는 이벤트의 중심에는 항상 당신이 계십니다. ♣

사진제공 / 20회 동문 청호 스님

# 용성 조사의 『歸源正宗』, 그 현대적 해석에 관하여 ①

원행 / 사교과

## 목 차

- I. 머리말
- II. 『귀원정종』의 수사학적 고찰
  - 1. 『귀원정종』의 구성과 내용
  - 2. 수사학적 구조의 고찰
- III. 철학적 해석학과 『귀원정종』
  - 1. 지명용법
  - 2. 현대적 해석의 실제

## IV. 맷음말

## I. 머리말

석존의 깨달음은 설법이라는 언어적 방편을 통해 중생들에게 전해졌다. 근기와 상황에 맞는 설법은 석존과 중생의 지평을 이어주었고 그의 깨달음은 널리 공유되었다. 입멸 이후 그의 가르침은 기록되고 여러 해석학적 장치를 통해 이해되어왔다.<sup>1)</sup> 그렇다면 현대의 해석적 지평은 어떠할까. 불법이 오늘날 대중들에게 적절한 코드로 풀이되고 있는지 묻는다면, 이를 위한 해석학적 장치들이 충분히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모되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대답을 하게 될 것이다.<sup>2)</sup> 많은 이들이 서양파의 대화를 통해 이를 시도하고 있다. 불교의 보편화와 대중화를 위해서 인문학이 최소한 이해와 설득의 방편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대 응용불교학에서는 새로운 언어와 방법의 탐구를 모색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들의 현재적 이해를 위한 자비심의 발로揭露라고 말한다.<sup>3)</sup>

이러한 시도를 근대 한국불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불교계의 큰 선지식이자 실천가였던 용성진종龍城震鐘 조사는 일제 강점기 타종교의 비방과 배척 속에서 『歸源正宗』<sup>4)</sup>을 저술했다. 근대 한국불교 최초의 호불론護佛論<sup>5)</sup>인 『귀원정종』은 비단에 직면한 불교 교의를 정립하는 동시에 기독교 교리

1) 사소의四所依를 비롯해서 격의格義와 교판敎判 그리고 오랜 주석적 전통 등은 모두 입증의 불교해석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설의 다양성 속에서 봇다가 가르치고자 한 바를 찾고자 한다. 정승석, 「원전해석학의 새로운 조명」, 『東國思想』 제 22집,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1989, pp.24~29

2) 오늘날 교판이나 과판 등을 새롭게 시도하는 이는 드물다. 김호성 교수는 불교학/불교철학의 경우 해석자의 방법론적 문제의식의 부재不在가 결국 대부분의 연구를 설명에 국한시키고 있다고 본다. 김호성, 「불교해석학 연구」(서울 : 민족사, 2009) p.210

3) 고영섭, 「응용불교학의 사상적 근간」, 『석림』, 제 37집 동국대학교 석림회, 2004, p.20

4) 용성진종 저/원조각성 역, 『歸源正宗』, 서울 : 나가원, 2013 (죽림정사, 용성진종 조사 유총실현후원회, 정토회 유포본) 귀원정종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바른 종지'라는 뜻이다. 즉, 올바른 가르침을 말한다.

에 대한 최초의 비교종교학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오도悟道한 선사禪師의 변론은 돈오頓悟의 활구活句가 아닌 문답과 설명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보편적인 문답의 형식은 논증에 합리성을 부여하고 점충적 설명은 정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시킨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타적 언어의 시설에 주목하여 이를 현대의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조망해보려 한다. 수사학은 용성이 대론자의 주관적 심리 경향을 어떻게 밖으로 이끌어내고 변화시키는지 구조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하며 철학적 해석학의 입장은 텍스트와 해석자간 지평의 공유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시대적 해석과 적용을 위해 모색했던 과정들을 현재의 지평에서 재해석하는 것은 지금 우리 스스로의 해석학적 안목을 넓히고 수행의 실천적 지평을 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I. 「귀원정종』의 수사학적 고찰

### 1. 「귀원정종』의 구성과 내용

『귀원정종』은 상, 하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록에 따르면 상권은 發問三十則(「緒言章」포함한 30장), 하권은 演義三十四則(개별적으로 밝히는 부분[別明] 포함 34장)으로 되어 있다. 상권은 문답의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하권은 문답의 형식과 함께 불법의 종지를 단계적으로 서술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상권에서는 주로 유교의 비판

에 대해 논박하고 제 1장에서 하권 중반부인 제 19장까지는 야소교耶蘇敎, 지금의 기독교에 대해 논의하며 후반부 제 20장에서 34장까지는 초기불교의 성문에서부터 대승의 화엄과 선종의 요지要旨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수행체계와 종지를 요점적으로 설명한다.<sup>6)</sup>

유교에서는 주로 인본주의人本主義의 입장에서 불교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비판의 내용은 크게 도덕적 윤리(2~6장, 18장), 인과와 윤회(10~14장, 26~28장), 우주와 존재의 본질(15~18장), 인간의 심성에 관한 문제(7~9장, 20~25장, 29장)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 주제들은 기실 송대宋代 아래로 계속되어온 불교 비판의 단골 주제들이다. 예를 들면 불자들이 3강 5륜의 예禮를 알지 못한다거나 출가로 인해 인구를 감소시키며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으면서 부처를 팔아먹고, 인과설은 허무맹랑하며 영원히 태어나는 길은 없고 만물의 근본은 태극이라는 주장 등인데 이렇게 비슷한 주제로 비판과 비방이 계속되어왔다는 것은 이들이 직접 비판을 제기했다기보다 이전의 주장을 겸토 없이 답습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용성은 불교가 근본적인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현실에 소홀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 경론을 인용하여 반박하는데 상권에서 거론되는 경론의 수만 해도 40종에 이르고 있다.<sup>7)</sup> 그는 삼귀의 오계에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배대하는 논리<sup>8)</sup>를 수용하여 유교와의 공통점을 제시한 뒤 유교에서는 삼강오륜을 밀할 뿐이지만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을 위해 서원誓願을 세우고 보현행普賢行을 실천함을

5) 조선 후기의 호불 관련 저술로는 함하函虛의 「현정론」, 작자 미상의 「유석질의론」, 백곡白谷의 「간폐 석교소」, 설침雪岑의 「십장문」, 연담蓮潭의 「상한농주필수장서」 등이 있으나 근현대 한국불교에서는 용성의 「귀원정종」(1913) 이후 이렇다 할 호불론을 찾아볼 수 없다.

6) 본 논문에서는 유교와 기독교의 비판과 관련해 각각 몇 가지 항목만 논의하고자 한다. 각 장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신규탁, 「귀원정종과 용성조사」, 용성스님 오도 123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장수 : 죽림정사, 2009)

7) 상권에서 전거로 들고 있는 경론은 「수능엄경」, 「원각경」, 「화엄경」, 「묘법연화경」, 「유마힐경」, 「육조대사법보단경」 등 주요경전을 비롯해 「열반무명론」, 「화엄경소초현담」, 「화엄경수소연의초」, 「유가사지론」, 「아비달마대비바사론」 등의 논서와 「원오불과선사어록」, 「대혜보각선사어록」, 「신심명」, 「증도가」, 「선종송고연주통집」, 「법원주립」 등 선작釋傳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논어」, 「맹자」, 「중庸」, 「열자」, 「장자」, 「주역」, 「도덕경」, 「노자」, 「노자서승경」, 「사기」, 「근사록」 등 유교와 도교에까지 이른다.

말한다. 출가하여 인구가 줄 것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활약했던 재가불자들을 거론하고 있으며,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자의 ‘朝聞道, 夕死可矣’를 들어 사문沙門 또한 공자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도를 추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음을 주지한다. 인과설에 대해서는 공자의 ‘積善之家, 必有餘慶’으로 공격하는 유교 측에 천하의 성인聖人인 요순堯舜에게 어찌해서 단주丹朱와 상균尙均 같은 어리석은 자식이 있으며 공자 같은 성인이 무슨 잘못으로 7일간 雪주리게 되었는지 등의 문제를 불교의 인과설(三世因果說)로 설명할 수 있음을 논하며 변론을 마무리짓는다. 또 태극설太極說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주역』의 내용을 들어 정확하게 설명하고 청량정관清涼澄觀의 논점에 의거해 이를 논파하여 유교 측의 핵심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풍부한 전거에 근거한 반론은 불교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비판을 제기한 유교 측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논파한다.

여러 방면에서 비판하고 있는 유교와 달리 기독교에서 직접적으로 비난한 부분은 여기서 거론되지 않는다. 현실 윤리적인 유교에 비해 당시 기독교는 기복적祈福의 면을 중심으로 포교를 시도하였다.<sup>9)</sup>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기복적인 기독교가 불교 교리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며, 용성이 그러한 비합리적인 비난에 대해 일일이 논박할 필요는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 용성은 기독교 교리의 모순점

과 얇은 견해를 불교와 비교하여 명확히 드러낸다. 기독교에 대한 비교종교학적 논의는 이전까지는 전무한 상황으로 『귀원정종』은 최초의 기독교 교리 논박서의 위치에 서게 된다.

살펴보면 신통(1~6장, 11장), 계율(7장), 천당지옥설(12~13장), 천지창조(14~17장) 및 창조주와 ‘말씀’(18~19장) 등 초월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용성은 이에 석존의 신통력과 상서로움, 십선계十善戒, 삼십삼천三十三天 등 신앙적인 측면에서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상권과 마찬가지로 여러 경론에서 전거를 들고 있다.<sup>10)</sup>

하권 제 6장 「佛之降魔：부처님께서 마군을 굴복시키다」를 보면 석존이 마군을 항복받는 과정에서 보인 신위神威를 묘사한 뒤 『성경』의 「출애굽기』를 인용하여 예수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고 40일간 단식하면서 하늘의 힘을 빌었음을 밝혀 석존과 예수의 신통을 분명히 대비시키고 있다.

제 7장 「引外典十戒配內典設敎：외전의 십계를 인용해 내전에서 시설한 가르침에 배치하다」에서는 기독교의 십계를 일일이 소개하고 제 10장 「佛之十戒總收三業：부처님의 십계로 삼업을 모두 포섭하다」에서는 불교의 삼천위의三千威儀와 팔만세행八萬細行<sup>11)</sup>이 십선계十善戒에 포함되고 이는 다시 삼업三業으로 포섭됨을 밝힘으로써 기독교의 계율이 그 범위와 내용에서 불교와 비교가 되지 않음을 드러낸다.

기독교에서 경배하는 하늘에 대해서도 용성은 33천의 차등이 있음을 밝힌다. 제 12장 「諸天修行

8) 삼귀의 오계五歸依 五戒를 삼강오륜三綱五倫에 배대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논리로 북위北魏 시대에 만들어진 위경魏經인 『毘諦波利陀羅』에 보이고 있는데 불법승佛法僧을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에 배대하고 오계(殺盜淫妄酒)를 인의에자신仁義禮智信에 배대한다.

9) “예수는 죽된 신을 물아내어 온갖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자기 능력을 삼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음식을 금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듣고 이끌었으며 ……”, 용성진종 著/원조각성 譏, 앞의 책, p.282

10) 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경론의 수는 28종으로 상권과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불본행집경」, 「세기경」, 「과거현재인과경」, 「지장보살본원경」, 「관불삼마해경」, 「성경」, 「금강경주」, 「금강경소론찬요」, 「화엄경소」, 「석가보」, 「권수정혜결사문」, 「고려국보조선사수심결」, 「전심법요」, 「대승기신론」, 「담주위산영우선사어록」, 「무문관」, 「몽산법어」, 「고봉대사어록」, 「불조역대통재」, 「소화원기」, 「증옹록」, 「법집별행록절요병입서기」, 「법개안립도」 등이다.

次序各異：모든 하늘은 수행 차례가 각각 다르다」에서 용성은 하늘에 태어나 영생永生을 받는 것을 구경究竟으로 여기는 외도에게 육계의 사왕천四王天에서 무색계의 비상비비상처천非想非非想處天에 이르기까지 하늘에도 각각 차등이 있으며 수행의 차제次第 또한 다름을 밝힘으로써 기독교가 알고 있는 하늘이란 마치 우물 속에서 바라본 세상에 불과함을 알려준다. 이러한 비교·대조의 논의를 통해 용성은 기독교의 견해가 좁고 얕다는 것을 대중 스스로가 알아차리게 하고 있다.

유교와 기독교의 비판에 대한 논의 후 불교의 수행 차제에 대한 점차적인 서술이 이어지는 데 먼저 성문과 연각을 거쳐 불보살의 수행계위를 자세히 밝히고 다음으로 화엄의 7처 9회 설법에 대한 요지要旨를 설한다. 그리고 나서 선종의 간화선을 언급하며 그 절요節要를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선종 오가禪宗五家의 가풍家風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 용성은 정법안장을 부족받은 조사이자 임제종臨濟宗을 계승한 선사의 입장에서 선종의 종취宗趣를 드러낸다.<sup>12)</sup> 그는 환성지안喚醒志安이 『禪門五種綱要』에서 밝힌 다섯 종파에 대한 관점을 계승하여 임제종臨濟宗의 機와 用에 대한 설說을 펼두로, 운문종雲門宗은 截과 斷, 조동종曹洞宗은 向上, 위양종鶴仰宗은 體와 用, 법안종法眼宗은 唯心으로 각각 그 강요를 밝히고 있다.<sup>13)</sup>

## 2. 수사학적 구조의 고찰

『귀원정종』의 서술방식을 수사학적으로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보편성을 갖춘 논증이 선사에 의해 전개되고 있으며,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언어와 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sup>14)</sup> 수사학(Rhetoric)<sup>15)</sup>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특별한 방법으로 전달하려 할 때 표현과 설득에 필요한 언어의 표현기법을 말한다. 고대 수사학의 체계를 세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주어진 어떤 경우에서도 설득적인 모든 요소들을 발견해 나가는 기술'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귀원정종』이 불법을 옹호擁護하기 위한 논서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타종교인들의 비방을 논리적으로 설복說服시키기 위한 설득적 요소가 중심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귀원정종』에서는 보편적인 문답의 형식을 통해 이러한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질문과 답변이라는 서술구조는 일차적으로 질문자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취하는 일종의 언어형식이다. 이 서술형식은 성인들의 경전과 교리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화법이나 공자와 제자들 간의 담론 그리고 불교의 선문답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견된다. 이는 진리 터득의 과정에서 이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반증

11) 행주좌와行住坐臥의 위의에 비구 250개를 적용하면 일천위의가 되고 그것을 삼세에 배대시키면 삼천위의가 된다. 위의 일천위의에 삼취정계三聚淨戒와 신구身口의 7업을 적용해 2만 1천세행이 되면 거기에 탐·진·치·만의 네 가지 번뇌를 배대해서 8만 4천 세행이 된다. 이를 팔만세행이라 한다.

12) 석가여래부처법 제 68세인 용성진종은 제 67세 환성지안의 법을 이어받아 역대조사의 정법안장을 계승했다. 이 앞부분까지는 중생교화의 이타적 차원에서 시대적인 방식을 수용했지만 마지막 이 부분만은 선사로서의 본자本脈을 드러내고 있다.

13) 『禪門五種綱要』는 한국 선종사에서 찾을 수 있는 드문 교의 강요서에 해당하는데 이전의 「人天眼目」에서 보여주는 번잡함에서 벗어나 각 종파의 교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선종오가에 대한 종합적인 친술을 통해 특정 종파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선종오가의 공통적인 교의를 정립하고 있다. 김상득(청원), 「禪門五種綱要」에 나타난 선종오가 교의의 특징, 한국선학 제 30집, 한국선학회, 2011, pp.681~682

14) 이러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작용했는데 14세 때 정법안장을 부축 받은 몽중수기夢中受記는 용성에게 대중교화의 인因을 심어주었고 47세 때 꿈속에서 재차 받은 부축은 역경과 저술에 대한 자각에 이르게 하였다. 또 일제강점기 기독교의 비방에 직면하여 변론서를 저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중의 연繆에 따라 그는 「귀원정종」을 저술하게 되었다.

15) 넓은 의미의 수사학은 B. C 5세기 시라쿠사의 코락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며, 이후 B. C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비로소 체계화되었다. 수사학은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영역과 교섭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사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설득'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다. 문답 방식은 문제에 대한 의문의 제기와 답변을 통한 의문의 해소 과정을 거침으로써 극적 긴장감이나 주의를 환기시켜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sup>16)</sup>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면 질문은 각각의 장에서 논의하는 내용의 화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질문과 답변”的 형식 속에서 논의의 초점이 답변에 있다는 사실이다. 표면적으로는 “질문→답변”的 순서로 논의가 진행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답변이 먼저 전제된 상황에서 질문이 제기되는 “답변→질문”的 순서로 조직되어 있다. 『귀원정종』에서 질문하는 주체인 “어떤 사람”은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기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지만 결국 용성의 답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는 질문이 용성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의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귀원정종』의 서언序言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논서는 불교에 대한 타자들의 의혹과 비난을 설명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저술된 것이며, 따라서 담론 후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용성에 의해 기획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의 기능은 좀더 극대화된다. 가상의 질문자는 주체적인 “질문”을 이용하여 화제를 제기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답변자에게 설복당하여 답변의 내용과 답변자 자체를 부각시키는 훌륭한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sup>17)</sup>

“만약 세상 사람들이 모조리 불교를 믿어 승려가 된다면 남녀가 생산하는 길이 모두 끊어져 몇 년

후에는 인종人種이 장차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오직 자기 한 몸만 수양할 뿐이니 누가 군주가 되고 누가 신민이 되겠는가?”<sup>18)</sup>

상권 제 18장 「人種滅絕難：다들 불교를 믿으면 인종이 끊어질 것이라는 힐난에 대하여」에서 질문자는 불교로 인해 출가자가 늘면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외형상 이는 문제점으로 보일 만한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불교를 믿는 대중 가운데 출가자뿐만 아니라 속세에서 삶을 영위하는 재가자들도 있음을 알지 못한 우문愚問이 되고 만다. 이어지는 답변에서 역사적으로 활약했던 재가신자들은 불교를 더 신봉하게 만드는 전거로 등장하는데, 당대의 고관대작이며 명망 높은 유학자 및 문인이었던 그들은 현실 속에서 유교의 예를 따르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받들었던 재가불자들이었다.<sup>19)</sup> 결국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질문은 답변자와 답변의 내용을 부각시키는 장치가 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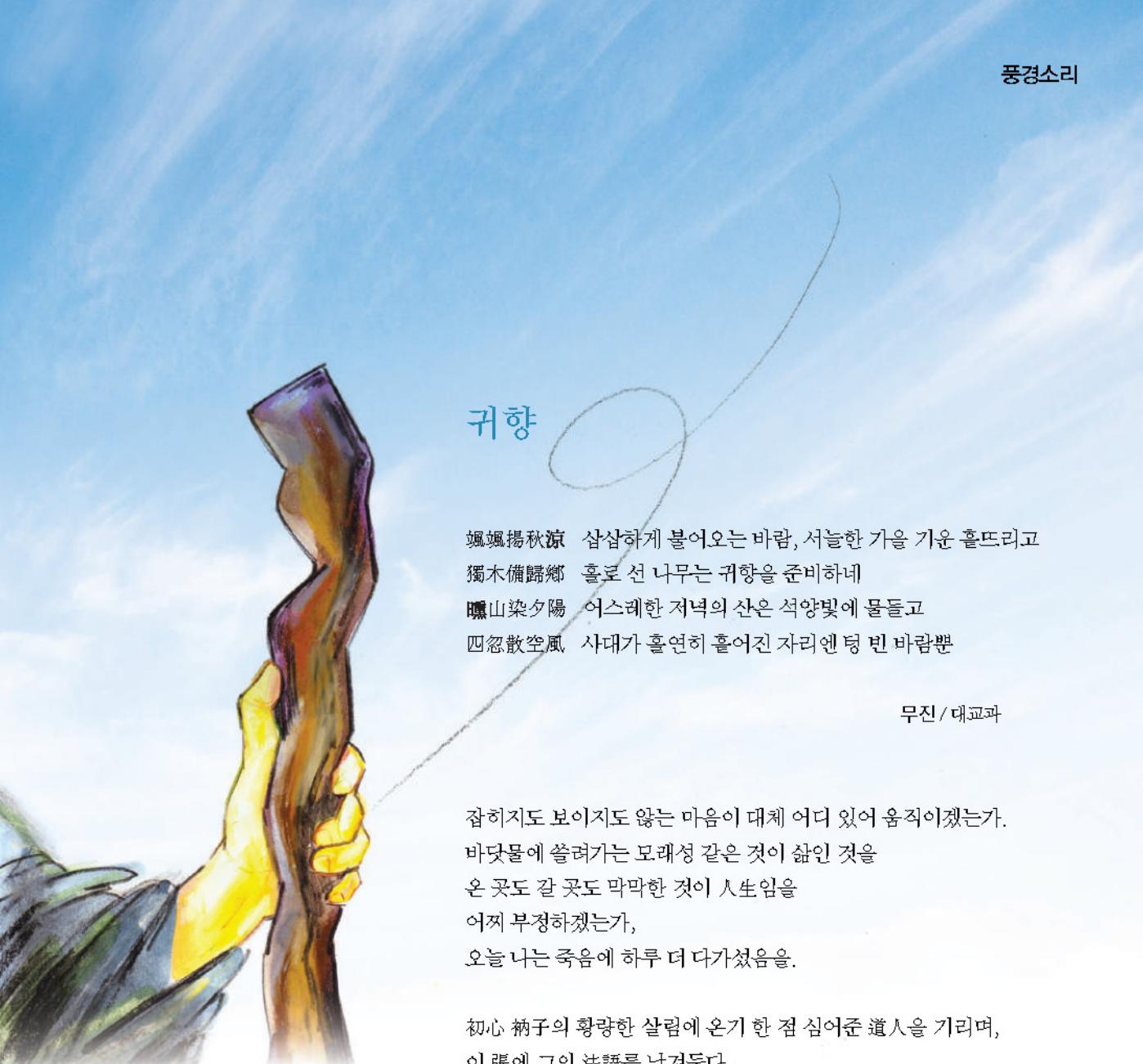
석존의 설법이 모두에게 설득력을 가졌던 이유는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라는 점과 설법의 방식 또한 모두에게 적합했다는 점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문답의 형식은 저자의 의도에 따라 질문이 설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기에 맞추어 법을 설하는 대가설對機說法과도 닮아 있다. 채택된 질문과 답변이라는 것은 결국 자주 거론되는 의문들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해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형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용성이 대론자의 근기에 맞추어 답변을 서술하는 형식 대신 일방적인 교리적 서술로 논의를 진행했다면 이 같은 생동감과 설득력은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

16) 이은자, 「법륜의 〈僧問觀說〉에 나타난 불교 수사학 -로고스를 중심으로-,」 선문화연구 제 19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5, pp.319~320

17) 조명학·김효신, 「問答의 수사학 -《孟子》〈萬章篇〉과 《叔明集》〈牟子理惑論〉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문학 제 44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5, pp.209~210, 참조.

18) 용성진종 著/원조각성 譜, 앞의 책, p.137

19) 이한로 李漢老, 방도현龐道玄, 부대사 博大士, 배휴衰休, 장상영張商英, 양문공楊文公, 여동빈呂洞賓, 도짐陶潛, 소수蘇軾, 백거이白居易, 유자후柳子厚, 두보杜甫, 김정희金正喜, 이건창李建昌, 김월창金月窓 등의 인물을 예로 들고 있다. 용성진종 著/원조각성 譜, 앞의 책, pp.139~143, 요약



## 귀향

颯颯揚秋涼 삽삽하게 불어오는 바람, 서늘한 가을 기운 흘뜨리고  
 獨木備歸鄉 홀로 선 나무는 귀향을 준비하네  
 曇山染夕陽 어스름한 저녁의 산은 석양빛에 물들고  
 四忽散空風 사대가 흩연히 흘러진 자리엔 둉 빈 바람뿐

무진 / 대교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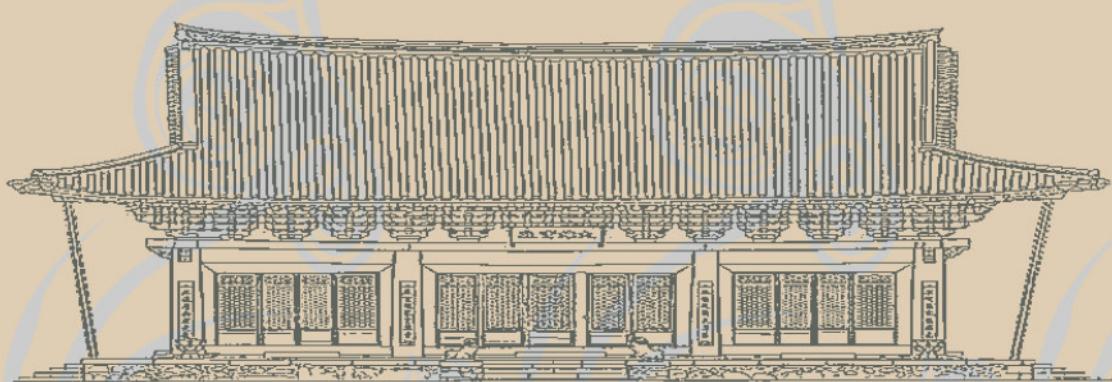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마음이 대체 어디 있어 움직이겠는가.  
 바닷물에 쓸려가는 모래성 같은 것이 삶인 것을  
 온 곳도 갈 곳도 막막한 것이 人生임을  
 어찌 부정하겠는가,  
 오늘 나는 죽음에 하루 더 다가섰음을.

初心 納子의 황량한 살림에 온기 한 점 심어준 道人을 기리며,  
 이 張에 그의 法語를 남겨둔다.

나는 이 순간에도 흘러죽어 들어간다. 그것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켜 산다고 하며 무엇이  
 나고, 무엇이 살고, 무엇이 죽는 것인가? 과연 이것뿐인지 아닌지 진실로 알고파 하는 뜻에서 세상살이에 깊이 無常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곧 죽는 인간에게 무엇이 귀한 것인가? 그러므로 나는 生死를 해탈하기 위하여 무엇이나 다 버리고 출  
 가하여 道를 구하고자 할 뿐이며 나 자신을 환멸의 현상계에서 실연한 사람이다. 물거품처럼 이 몸 실로 믿을 길이 없  
 으니 하루 속히 道人을 뵈옵고 道를 배울 일만 남은 것이다.

청담 스님 法語



## 대웅전 다시 보기

동호 / 사집파

서울 사람들은 오히려 남산이나 63빌딩에 잘 가지 않는다고 했나요? 운문사에 살고, 매일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지만 오히려 대웅전을 자세히 볼 기회는 적습니다. 어느 날 벽화를 보다가 무슨 내용일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왕에 찾아보는 것, 모두가 알게 하자. 이 글의 시작입니다.

절 안의 모든 건축물, 그림, 조각들은 모두 불교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운문사 대웅전의 벽화들로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우선 대웅전 안쪽으로 사성제(뒤쪽 4폭), 설산동자의 구법(왼쪽 첫 번째), 혜농대사(왼쪽 두 번째), 선혜보살의 수기(오른쪽 첫 번째), 사천왕의 발우 현공(오른쪽 두 번째)과 대웅전 바깥쪽으로 양 옆의 육바라밀, 대웅전 뒤쪽에는 운문사 역사와 관련한 원광법사의 세속오계,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대웅전만 제대로 봐도 부처님의 탄생부터 초기불교, 선불교, 한국불교까지 불교의 역사를 섭렵할 수 있습니다.

‘대웅大雄’은 고대 인도의 ‘마하비라’를 한역한 말로, 법화경에서 석가모니를 위대한 영웅, 즉 대웅이라 일컫는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운문사 대웅전은 삼세불三世佛인 연등불, 석가모니불, 미륵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연등불은 인도말로 디팡카라(Dipamkara)이며 이를 제화갈라라고 음역합니다. 양쪽의 협시보살은 4대보살인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이 봉안되어 있고 후불탱화로 삼세불탱화를 봉안했으며 우측에는 53선지식을 그린 탱화와 상단 뒷면 벽에는 관세음보살32응신도, 영산회상도, 석가삼존 오백나한도를 봉안하였습니다. 법당 내부에 그리는 불화를 보통 탱화라 하며 외부 벽에 그리는 그림은 벽화라고 합니다.

### 1) 후벽 탱화

대웅전의 상단 즉 중앙에 모셔진 불보살상의 뒷면에 거는 탱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웅전에 오지만 상단 탱화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바빠서’ 혹은 ‘몰라서’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공개합니다.



〈관세음보살32응신도〉

〈영산회상도〉

〈석가삼존 오백나한도〉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는 부처로부터 시작하여 집금강신에 이르기까지 32응신으로 변신하여 중생을 범뇌와 재난으로부터 구하는 '관세음보살의 방편지력'이 설해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32응신도는 바로 이 화신 구제의 극적인 순간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오백나한에 대하여는 여러 경전에 기록이 있는데 『중일아합경』이나 『십송률』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중인도 교살라국의 사위성에서 500명의 나한들을 위하여 설법하였다고 하며, 『흥기행경 起行經』에는 매월 15일 500나한을 위한 계를 설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법화경』의 「오백제자수기품」에서는 부처님께서 500명의 나한을 위하여 특별히 수기를 배웁니다. 『오분율』에는 부처님께서 열반한 직후 중인도 마가다국 왕사성의 칠엽굴에서 500명의 나한이 결집하여 불전을 편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1결집을 오백결집이라 부릅니다. 부처님 열반 후 600년이 지난 뒤, 인도 서북경의 가습미라에서 열린 제4결집, 즉 비바사론 결집에서는 500명의 비구가 참가하였는데 이들도 오백나한으로 반들어집니다. 오백나한이란 석가 생존시의 500명의 제자나 석가의 열반 후 결집한 500명의 나한이나 비구 등 여러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 2) 사성제



1. 고성제 生로병사  
3. 멸성제 상락아정常樂我淨

2. 집성제 환신몽택幻身夢宅  
4. 도성제 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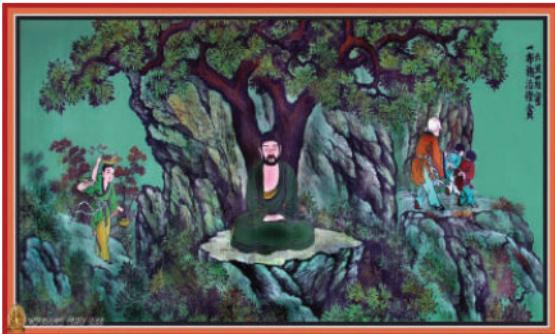
우리가 사는 실상은 고통입니다. 늙고 아프고 죽기 마련이고 이별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 목 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욕망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을 환신몽택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의 본 내용은『삼국유사』에 기록된 조신지동調信之夢, 조신이라는 승려의 꿈에 대한 설화입니다. 조신이 태수의 딸을 사모하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둘은 함께 살게 되지만,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결국 아내의 제안으로 헤어지며 꿈에서 깨어납니다. 젊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의 이슬이요,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 같을 뿐입니다.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깨비 같은 봄은 꿈속의 집입니다.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팔정도, 바르게 보고(正見) 바르게 생각하며(正思惟) 바르게 말하고(正語) 바르게 행동하며(正業) 바르게 생활하고(正命) 바르게 노력하며(正精進) 바르게 현실적시하고(正念) 바르게 집중(正定)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면 상락아정입니다. 열반의 네 가지 덕德입니다.

## 3) 육바라밀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개인적인 수행법인 팔정도는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육바라밀 수행법으로 변화됩니다.

## ① 보시



바라문에게 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제석천은 태자비마저 보시하라고 시험하고 태자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감동한 제석천은 태자에게 다시 아이를 돌려줍니다. 좀 극단적인가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마저 베풀 수 있어야 보시행은 완성된다고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행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한다는 생각도 내지 않고, 어떠한 선행의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 ② 지계

어떤 수행자 일행이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부낭에 겨우 목숨만 의지해서 정처 없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때 배고픈 나찰이 나타나 부낭을 달라고 합니다. 수행자 일행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에 거절합니다.

“설령,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줄 수 없습니다.”

“절반이라도 줄 수 없습니까?” “아니오.”

삼분의 일이라도, 손바닥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거듭해서 수행자들은 나찰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비록 바늘孔만큼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 하므로 조금이라도 이것을 준다면 바로 기운이 점점 새어 나가 마침내 물에 빠져 죽는 일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낭은 계율이고 나찰은 우리 마음속의 번뇌이며 바다를 건너는 것은 생사고해를 건너 열반의 언덕으로 가는 수행입니다. 티끌만큼이라도 계를 소홀히 한다면 점점 새어나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계에 의지해 수행하고, 작은 행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교훈이 이 벽화에 담겨 있습니다. ◆

『본생경』에 나오는 보시태자에 대한 설화입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요하나국의 태자인 ‘스다나’로 살았을 때입니다. 스다나는 학문 무술 등 여러 가지에 두루 능통했고 ‘누가 내게 내가 가진 그 무엇을 달라고 하면 싫어하거나 주저함 없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베풀겠다’고 원을 세우고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주저함 없이 보시하던 태자는 결국 태자비가 과일을 따러 간 사이에 두 아이를

##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혜선 / 사집파

대중스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옆자리 도반 스님들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해보시겠습니까? 어떤가요? 혹시 마음에 감흥이나 울림이 있으신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바다는 왜 바다라고 하는지, 바다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누가 언제부터 바다라고 소리 지었을까? 궁금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익혀 무심코 쓰고 있는 말들이라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알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우리말의 어원과 의미를 새겨보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우리의 삶과 세상 이치를 모두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우리말의 의미를 소개하고 그것을 통한 마음의 울림을 대중스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어원은 연구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은 어원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해석을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속 감흥에 따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좀 전에 하셨던 인사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는 ‘반+갑다’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반의 어원은 ‘한’과 관련된 음가로 이는 곧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갑다는 ‘반과 같다’는 뜻이고, 상대방에게 ‘당신은 하늘의 신과 같이 크고 밝은 존재입니다.’라는 찬사를 보내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반갑다’라는 말은 상대에 대한 축복과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고 불교식으로 해석하자면 늘하는 인사말을 통해 상대가 곧 부처임을 서로 일깨워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맙다’의 뿌리가 되는 글자인 ‘고’는 높은 신을 가리킵니다. ‘고’에 여성성을 뜻하는 ‘고마’가 불으면서 ‘고마’는 여신, 풍요를 상징하는 땅의 신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따라서 ‘고마와 같습니다’ 즉 ‘당신은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일으키게 해준 원인에 대해 그 상대에게 ‘당신은 부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차분히 ‘고맙습니다’를 마음속으로 되뇌어보면 그 이면에 ‘미안합니다’라는 마음이 같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고마운 대상에 대해 ‘부족해서 미안해~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는 마음이 묻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인사하는 그 순간, 그 찰나만큼은 “나”라고 할 것이 불을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불어 있는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지요. 이미 나는 없고 상대를 부처님으로 존중할 뿐이니, 그대로 부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말이 뜻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와 같은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면서 살 수 있으면, 저절로 내가 내려놔지고 본성품과 하나 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는 잠들기 전 저를 지탱해주고 있는 온몸 세포들을 향해 “고마워~ 내가 어리석어 고생시켜 미안해.”라고 인사합니다. 또 광대무변함으로 품어주고 있는 이 삼천대천세계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혹시 감통이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께도 권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하면서부터 저는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느낌이 참 좋습니다.

다음으로 ‘좋다’, ‘나쁘다’에 대한 의미를 새겨볼까요? ‘좋다’는 말에는 조화롭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 어긋나지 않고 잘 어우러지는 것. 어울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쁘다’는 ‘나쁜’ 인 상태. 즉 나의 입장,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 나쁜이어서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것. 즉 불교식 표현으로 하면 아상我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간 뜨끔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좋다’와 ‘나쁘다’라는 말 자체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군더더기 없이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자명함에 의지해 행한다면 그대로 깨달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말’과 ‘얼굴’의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늘리면 ‘마알’이 되는데, ‘마음 알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말에서 제 마음 알맹이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같은 맥락으로 ‘말씀’은 ‘마음 씀씀이’를 말하는데, 마음을 잘 쓸 적에 ‘말씀’ 하신다고 합니다. 겹례기 말고 마음 알맹이를 잘 쓸 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얼굴’은 ‘얼’과 ‘굴’로 이루어진 순 우리말로써, 얼은 정신, 또는 정신의 골격,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굴은 구멍 또는 골짜기를 뜻합니다. 따라서 얼굴이란 얼이 깃든 골 또는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는 뜻입니다. 대단하지요? 지금 보고 계신 제 얼굴이 저의 얼이고 제 마음입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어린이’는 얼이 차츰 어리어 가는 사람. ‘어른’은 얼이 익은 사람. ‘어르신’은 얼이 완숙하여 얼이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르신이라는 말 자체에 지혜를 갖추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열매가 영글듯 얼이 알차게 익는 과정을 뜻합니다.

정리해보면 저의 “얼굴”과 제가 사용하는 “말”이 그대로 저의 정신이고 마음인 것인지요. 이러한 이치를 깊이 자각한다면 순간순간 마음 씀씀이를 절대 가벼이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복잡다단한 이론이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꽃이 말을 건네 오다

선주下 / 사미니파



사랑, 희망, 기쁨 등과 같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꽃’이 저에겐 그려합니다. 꽃이라는 단어보다는 실물의 꽃을 보면 저절로 온몸이 꽂 열리듯이 입가에는 웃음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온몸 전체가 그 꽃으로 다가가서 와락 안고 싶을 만큼의 충동이 일어나지만, 정작 앞에 서면 한 걸음 살짝 물러나 한 숨 돌이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의 손을 내밀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이 일련의 동작, 몸의 변화들을 즐기고 좋아해서 꽃을 좋아하는 것인지 혼돈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꽃의 모양, 아름다움,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 꽃빛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나의 빛과 만나서 기쁨의 빛으로 나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한숨 돌려 쉬어가게 해줍니다.

운문사에서 행자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 스스로는 매일 매일이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웃에서부터 사용되는 말, 어투 등등이 사전 정보 없이 접하고 보니 입은 다물고 있었으나 머리와 가슴은 늘 ‘우와---’ 하고 놀람의 탄성을 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일련의 마음의 변화나 생활들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와 통화를 할 수 없었기에 먹먹하게 ‘받아들임’을 연습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불을 끝내고 안행하면서 걸어오는데 이 목소 너머 숲에서 노래가 울려나왔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으나 분명히 노래였습니다. 김영동의 ‘바람의 소리’의 첫 부분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갖가지 나무끼리 바람에 흔들려서 춤추며 만드는 소리와 이목소의 물소리가 어우러져서 어찌

면 그렇게 똑같은 노래를 만들어내는지… 환청??? 바람의 소리. 그때 저는 아, 김영동 씨가 이 소리를 음악으로 옮겼구나,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가슴에서 단전 깊숙이 내려갔다가 다시 머리 정수리로 연꽃이 피어올라서 나의 가슴에 꽃이 하나 내려앉습니다. ‘바람의 소리’를 듣고 감상합니다. 자연이 들려준 그날의 소리를 떠올리며 자연을 벗 삼아 행자생활을 스스로 즐기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이 회주스님께서는 철철이 꽃을 많이 심어주십니다. 나무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꽃도 다양하게 바꾸어 가시면서 도량에 알맞게 장식하십니다. 거의 결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일상생활이지만 어쩌다 약간 시간 여유가 생기면, 눈이 나랑 마주친 꽃 앞에 털썩 앉아 한참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안하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도 모르게요. 제 나름 꽃에게 다가갈 때 하는 습관이라면 습관이 있습니다.

한 걸음 전에 인사를 건넵니다. 속으로! 그리고 한 발짝 다가가서 다시 인사합니다. 저를 소개할 때도 안할 때도 있지만, 숨을 가볍게 고르고 앞에 마주 서 있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꽃이 말을 걸어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떻게 꽃이 말을 하느냐구요? 꽃 그 자체로도 충분히 기쁨을 주고 이 기쁨을 저는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을 합니다. 꽃이 온몸으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꽃이 ‘흔들, 흔들’ 내 앞의 꽃이 그렇게 인사를 해옵니다. 나 자신이 우주와 연결되었다고 느껴질 만큼, 이 작은 꽃의 말을 존중하고 아낍니다.

운문사에는 기쁨이 많습니다. 봄과 여름철을 보낸 우리 치문반 도반 스님들은 이 가을철 지대방에 앉아서 하는 얘기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해주신 강사스님의 말씀에 다시 마음을 세워 본다” “강사 스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시니 잘 수가 없었다. 그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대단하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우리반 스님들,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 있어요?” 하면 본인이 쉬는 시간인데도 “응, 제가 갈게요.” 하고 몇몇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고는 서로 가려고 하고, 치문 강 바침 것 서로 무슨 뜻인가하면서 소리 내어 외우는 지대방, 누군가 아프다 하면 모든 손과 입들이 아픈 도반 스님을 향해 가고, 울력 후 본인 소임 마치고도 아직 마치지 못한 도반 스님들이 있으면 남아서 도와주는 그 모습들이 마치 하늘에서 땅에 내려앉은 꽃들처럼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렇게 한 철 한 철 성장해가는 우리 도반 스님들 가슴 가슴에 있는 각자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땅에 있는 저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기쁨이니 천상에서도 죽히 아름다운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치문반에 시를 좋아하는 스님이 있어 꽃 관련된 시가 없을까 하고 찾다가 해가 스님이 승찬 스님에게 일려준 전법계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本來緣有地 因地種華生

本來無有種 華亦不會生

본래 연이 있는 땅이기에

因地에 씨를 뿌려서 꽃이 피었고

본래 종자가 있는 것이 아니며

꽃도 또한 피는 것이 아니다. ●

## 출가 – 영겁의 세월 씨 뿌려 가꾼 귀한 열매

능가 / 사집과

연잎차 향기가 은은하게 입 안과 주변 공기에 맴돌고,  
눈앞엔 뽀얀 뭉게구름이 차분하게 열린 문으로 아침 인사를 건네며,  
장독 위에는 이름 모를 새가 예쁜 노래를 목청껏 뺏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풍경은 소임 덕분에 맞이할 수 있었던 사리암의 아침 6시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이 속에 제가 있음이 너무 행복해서 마음이 뭉클합니다.

지구상에 이런 행복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출가를 해야만 만날 수 있는 갖가지의 모습을 한 행복 앞에서 마음이 벽차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동의 눈물이 차올라 목구멍이 탄산음료를 마신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수행자들에게 ‘출가’라는 단어는 둘 뒤에 몰래 넣은 ‘얼음’ 같아서 방심하여 놓고 있던 마음을 화들짝 들게 합니다. 또 ‘회초리’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바로 세우게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과 같이 ‘출가’가 불러온 행복 앞에서는 ‘출가’를 선택한 자신의 영특함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지만, 크고 작은 언쟁 속에서 가장 상대방을 모욕적이고 부끄럽게 만드는 말 역시도 “스님은 도대체 왜 출가했습니까?”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출가’라는 단어는 한없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한없이 부끄럽거나 비수처럼 상처를 입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출가를 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그 무겁고 진실한 시간 속의 서원이나 결심을 하면 자신의 모습을 마음 속 제일 깊은 곳에 간직하고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일에 부딪혀 마음이 주저앉아 있을 때, 온갖 망상들의 물장구질로 마음이 훌탕물빛으로 변해 고른 숨을 쉬기 힘들 때, 온종일 함께 불어 있는 도반스님들이 악마처럼 보일 때, 그 모든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동아줄은 오직 ‘출가’ 할 때 그 마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움에서 탈출하면 다시 또 밝은 출가세상이 펼쳐지고 언제 그랬나는 듯 맑고 밝은 본래의 미완성 부처님 모습으로 되돌아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가할 때 별다른 뜻 없이 또는 굳은 생각이나 서원을 세우지 않고 출가한 분들은 다시 한번 더 발심하여 서원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서원이나 발심 없이 출가했다는 스님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 스님들이 기억하지 못할 뿐일 것입니다. 분명히 영겁의 세월 동안 출가를 향한 발심의 씨를 뿌리고 소중히

가웠기에 오늘 ‘출가’란 값진 열매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애 만나진 ‘출가’란 값진 열매에 대해 진심으로 환희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가족, 주변지인들에게 “저 출가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느꼈을 그분들의 놀라움과 기습 먹먹함만큼 출가하신 우리 스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가자들이 느끼는 행복은 자기 자신만의 행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모든 존재들의 행복까지도 축원해 줄 자비의 텃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과연 어떤 누구의 행복을 기원해 줄 수 있으며, 어떤 누구에게 나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복의 길로 가자고 할 수 있을까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일…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 바라시는 부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가장 첫걸음은 우리 스님들 각자 자신이 먼저 행복하기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평안함과 자비함으로 주변을, 이웃을, 모든 생명까지 두루 살핀다면 진실한 수행자

다운 모습으로,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부한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이 온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수행자일 것입니다. 사리암 소임 중에서 맞이한 오늘 아침의 저의 작은 행복이 이 법계 모든 수행자들의 행복으로 들불처럼 번져가길 바라는 발원을 세워봅니다. 마음속에 부처님 미소를 닮은 한세상이 펼쳐집니다.

수행자가 누리는 작은 행복은 이 우주 법계를 모두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누구나 모두 행복하시기를 마음껏 행복하시기를 없던 행복도 만들어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합장 올립니다. ♣





## 이 공부를 하면 멋있어요!

– 문수선원 선원장 현욱 스님

지옥上 / 사교과

9월 가을비에 흠뻑 적셔진 솔잎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는 오후, 바랑을 메고 문수선원을 향해 걸었다. 호주머니 작은 수첩에 적어두었던 질문을 꺼내 읽어보며 소중한 시간을 기대했다. 선원 앞 극락교를 지나 지난봄 진달래가 균락을 이뤘던 풀숲을 보며 가까운 듯 멀게 느껴지는 문수선원도량에 서 있었다.

후원에서 나오신 선원장스님께서는 푸근하고 편안한 노스님처럼 반갑게 맞아 주셨다. 시자스님의 안내를 받아 계곡 옆에 위치한 작은 황토방의 다실로 갔다. 창 밖의 물안개를 바라보며 꼭 한번 와 보고 싶었던 다실을 방문한 기쁨을 감추며,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어른스님 앞이라 조심스러운 그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지 뭐”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다. 이제 귀담아 들을 마음의 자세도 준비된 듯 했다. 약간의 정적은 스님의 구수한 녹차 한잔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 운문사 강원시절

늘 소임 사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스님께서는 ‘보름지기 수(須)’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경전을 한문의 지식이 많지 않았어도 다른 스님들보다 새김이 쉬웠다고 말씀하셨다. 수덕사 견성암에서 출가하신 스님은 행자시절 복이 많아 여러 큰스님들과의 인연이 있었고 많은 법문을 들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다. 그때는 강원수학기간이 6년 이었다고 하시면서 지금의 운문사가 되기까지의 한 컷 한 컷 기억을 가지고 계셨다. 비구니계의 큰어른이신 명성 회주스님을 태산같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시며, 학인시절 회주스님과의 일화를 말씀해 주셨다.

운문사 10회 졸업생이신 선원장스님은 그 당시 운문사 주지스님의 잊은 취임과 사임의 문제가 있어서 10회 선배스님들은 스님 몰래 품신을 올렸다고 하셨다. 그 당시 학인스님들이 당시 강사셨던 명성 회주스님을 주지스님으로 추천했다는 말이다. 종단의 여러 어른스님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르셨던 스님이 오해를 받게 된 사건을 계기로 스님과 선원장스님의 짧은 대화가 아주 진솔하게 들렸다.

“왜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지를 살 수 있겠어요?”

“네. 스님은 진실하시잖아요.

진실한 것이 스님의 무기이시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 스님께서는 강사와 주지소임을 겸하게 되셨고 학인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신 회주스님의 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사리암 사리암

그리고 돌아가신 전 선원장 해온慧隱 스님을 사리암 원주스님으로 모시고 오게 된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학인시절 한창 선방 수좌로 공부하시던 스님을 겨우 설득하여 모시고 오셨다고 했다. 늘 그때 공부를 못하게 막은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하셨다.

故 해온 스님은 그 당신 무속적인 기도처로 자리한 사리암의 분위기를 불교를 수행하는 기도처로 바꾸어 놓으셨다



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사리암소임자는 학인들에 의해 기도비가 거두어지기 바라는 스님의 뜻에 따라 생겨난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

안팎으로 학인이 주인이 되어 절 살림이 체계화되었고, 이 모습에 신심이 깊었던 이인회 거사님의 사리암 대작불사로 운문사가 커지고 학인이 배불리 먹게 된 역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가 운문사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씀하실 만큼 대단한 불사임은 지금 우리 학인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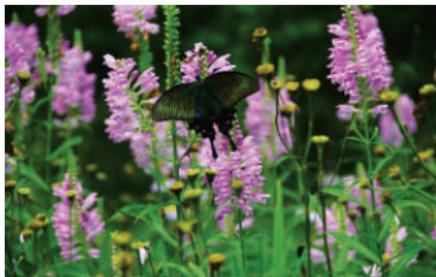
연신 감탄사만 계속되었다. 많은 시간의 변화를 겪어보지 않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밖에….

지금 운문사 학인들은 사리암을 오르는 돌계단 하나하나를 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 케이블카 불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반찬 하나 만들 나물이 없었던 시절을 알 수가 없다. 긴긴 시간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역대 소임자 스님들의 정성과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좋은 환경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고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동안 어렵지 않게 수용한 많은 것에 대해 혹가벼이 여간 적은 없는지 반성하게 된다.

“그래도 운문사 살 때는 운문사가 좋은지 몰랐어요. 운문사를 나오니 운문사가 그리워요”

어려운 시절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선원장 스님의 마음은 운문사의 역사와 함께 묻어났다.

하지만 많은 말을 아끼시며 지금의 운문사가 있기까지 사리암 불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회주스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공이 컸다며 이야기 속에 당신의 많은 말을 덮으시는 것 같았다. 창밖의 계곡 물 소리가 녹차 찬에 담긴 듯 구수한 녹차 맛이 열어져 갈 즈음 공양시간을 알리는 목탁소리가 들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려는 스님은 그 순간 가장 하고 싶었던 마음의 이야기를 해 주셨다.



“저는 공부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격려와 사랑만큼 잘되지가 않았어요. 70을 넘어 사니 일생이라는 것이 짧구나, 부처님은 몇 겁을 닦으셨다는 것이 맞겠구나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는 딱하나 이 공부는 꼭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신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것을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정확한 믿음과 확신이 서야 돼요. 저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마음공부를 가르쳐 주셨는가! 불성이 있다는 이런 말을 하셨는가! 생각하며 항상 감사해 합니다. 정말로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이 공부를 모든 중생한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수행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가장 부자예요. 공부하다보면 진심으로 사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신심이 마음뿌리에 박혀 늘 절박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저 그 순간 생활하는 그게 전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듯 했다. 불교에 귀의하여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어도 막상 갖가지의 경계에 대면해서는, 그동안의 가르침 한 구절, 사무치던 그 마음은 내 행동 어디 있는지… 수행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몇, 분별과 어리석음이 순하고 당연한 말씀 속에 셋어 내어지는 듯 했다.

“나는 선가귀감을 좋아하는데 다른 건 잊어버리고 좋아하는 끝 구절이 떠오르네요. 神光이 不昧 하야 萬古에 微猷하니 入此門來인댄 莫存知解니라.”

준비했던 질문지를 꺼내지 않았다.

이 공부 말고는 할 게 없다는 말씀. 세상 사람들이 이것 말고 무엇을 또 하는지 모르시겠다는 말씀에 내 마음에 많은 망상들은 자리할 곳이 없어진 듯 했다.

끝으로 信心銘 첫 구절인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를 인용하시면서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다. 마음에 깊은 신심이 자리 잡았다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는 응원과 격려였다.

학인 시절 방향을 찾아가는 초심자에게 가장 담백한 말씀이 아니셨을까?

“이 공부를 하면 멋있어요, 아침햇살도 멋있고 소나무도 멋있고 바람이 불면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 정도가 되면 순탄하게 될 거예요.”





## 무엇을 먹을 것인가?

불살생(Ahimsa아힘사)에 대한 성찰

임동규 / 농부의사

우리는 살기 위해 먹고, 또 먹기 위해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요리해서 먹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씁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짚어죽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흰쌀밥에 고기반찬은 부의 상징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식은 생명 유지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상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암 발병 유발 인자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30~35% 이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술과 담배 등 다른 암 발병 요인과 무관한 경우 음식이 차지하는 암 원인의 비중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음식, 돈 주고 먹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말 잘 먹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먹는 것이 없어서 문제이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 없는 원래 자연스러워야 할 일이 섭생입니다. 동물들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무엇이 이로울지 다 압니다. 다만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는 우리 인간만이 따로 음식을 공부해야 하는 아이러니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왜 먹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속에서는 날마다 1조 개 이상의 세포가 소멸하는 동시에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날마다 반복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수는 대략 60조 정도이고, 하루에 바뀌는 세포는 그 중 약 1/60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포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지요. 세포 수명은 조직이나 장기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교체 시간이 가장 짧은 위장 세포의 주기는 2시간 30분이며, 교체 시간이 가장 긴 뼈는 완전히 새로 바뀌려면 대략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적 관점에서 보면 평균 5~10년 정도 지나면 예전의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도 채 안 돼, 재생 않는 일부 세포만 제외하고 우리 몸은 쪽 바뀐다는 뜻이지요. 즉, 이제까지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I am what I eat! 만약 정크 푸드나 육식처럼 건강을 해치는 쓰레기 같은 음식을 주로 먹는다면 우리 몸은 쓰레기로 지어진 몸이 될 것입니다. 병든 몸이 된다는 뜻이지요. 꽤 적하고 몸에 좋은 짐을 지으려면 좋은 천연 재료를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우리 몸에 적합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살아 있는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 움직여 제 기능을 다하려면 적합한 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휘발유 자동차에는 휘발유를 넣고 정품의 엔진오일과 브레이크 오일 등을 써야 차가 제대로 움직이듯, 사람에게 적합한 음식을 제공해야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치유로 이끌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음식, 우리 몸에 알맞고 적합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영양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열량 영양소(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열량 영양소(비타민, 무기질, 항산화물질, 섬유질 등)가 있습니다.

- 1) 단백질 :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형체, 면역글로빈, 구조 단백질 등 인체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기에, ‘단백질 섭취가 많을 수록 좋다’고 알고 있지만, 매우 잘못된 정보입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우리 몸은 단백질을 적게 필요로 합니다. 영아는 한 돌이 되면 키는 1.5배, 몸무게는 3배가량 큽니다. 이렇게 쑥쑥 크는 영아기 동안의 주식인 모유 속에 함유된 단백질 함량은 약 7% 정도입니다. 따라서 인생 주기 중 가장 빠르게 가장 성장이 빠른 영유아기가 아니라면 이보다 많은 함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미에는 약 8%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니 건강한 채식이면 충분하다는 뜻이며, 당연히 동물성 식품의 단백질 함량은 지나치게 높다는 뜻입니다. 이미 오래 전 1973년 하버드대학은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에서 “설탕과 캠, 젤리처럼 단백질이 전혀 없는 식품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를 빼고는, 눈에 띄게 단백질 부족을 일으키는 채식 식단을 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2) 지방 : 세포의 구성성분이며,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존재라고 알려져 마치 많이 섭취해야 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지방은 매우 적게 필요하며, 지방도 지방 나름이지요. 특히 육식에만 있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필요시 스스로 만들어 내기에도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고, 중성지방 역시 매우 적은 양만 필요합니다. 식물의 견과류에 풍부하며, 곡류나 콩에도 적지 않습니다. 들깨나 올리브유 등에는 오메가 3가 풍부합니다.
- 3) 대신 세포의 연료로 주로 쓰이는 복합 탄수화물은 단백질과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 4) 또한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물질 그리고 섬유질 등 비열량 영양소는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섬유질은 제 2의 면역기관으로 알려진 장의 유익균의 먹이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영양소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음식은 복합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물질 등 비열량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 즉 건강한(현미) 채식입니다. 반대로 인체에 적합하지 않은 육식이 포함될수록 점점 인체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환경호르몬이나 화학물질, 농약 등이 들어 있지 않는 음식 재료입니다.**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POPs(잔류성 유기 오염물질)는 잘 분해되지 않고 세포에 축적되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발암물질이 대부분입니다. 주 오염원은 먹이사슬에 상충에 속하는 가축이나 참치 등 몸집이 큰 동물성 식품입니다. 살인 가습기 메이트로 알려진 충격적인 유해한 화학물질은 대기 오염이나 물을 통해서도 유입됩니다. 따라서 육식을 멀리하여 섭취를 줄이는 것과 함께 알게 모르게 섭취하거나 흡입한 독성 물질을 배출 해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해독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섬유질과 항산화물질입니다.

실례로 2차 세계대전 중, 많은 일본인들이 원자폭탄에 의한 방사선 피폭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원폭 투하지점에서 1.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나가사키의 한 병원의 원장, 직원 그리고 환자 중에는 방사선 피폭 후유증을 보인 사람이 거의 없이 대부분 건강하게 살았는

예, 그 이유는 현미밥, 된장, 다시마, 표고버섯, 천일염 등으로 짜인 식단 때문이었지요. 실제 과학적 실험에서도 섬유질과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현미채식의 탁월한 해독 능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양학적으로 보나, 독성물질 배출능력으로 보나 건강 유지와 질병 치유에 매우 합당한 음식은 현미채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미국 영양사 협회는 1988년, 2003년, 2009년에 “적합하게 계획된 채식주의자를 식이요법(완전채식(비건))은 건강식, 영양식이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좋은 효과를 제공하며, 임신, 수유기, 유아기, 유년시절, 청년시기 모두를 포함한 인생의 라이프사이클(life-cycle)의 모든 시기에 적절하다. 물론 운동선수에게도”라고 발표하여, 이런 주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동물성 식품은 암의 원료이자 먹이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콜린 캠벨의 저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따르면 동물성 식품(고기, 우유, 계란, 생선 등)을 많이 섭취할수록 암, 골다공증, 심장병, 그리고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유 섭취량이 높은 나라일수록 골다공증 발생률이 높아지고,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 불내증 환자에게서는 암 발생률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성 식품은 IGF-1과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 물질들은 세포 분화와 중식과 관여하여, 암 세포 중식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보고는 양심 있는 의사, 영양학자 등 과학자들에 의해 속속 보고됩니다.

**넷째, 채식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농약과 GMO문제와 사회 환경적 문제 해결에서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GMO 작물은 가축사료 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 생산 재배됩니다. 다시 말해 거의 모든 육용 가축은 GMO 작물을 키워쳤기에, 우리가 육식을 줄이거나 끊는다면 GMO 작물이 설 자리는 없어지고 GMO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채식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국민 건강이 향상되고 그로 인해 국민건강 보험 재정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인류가 육식을 하지 않는다면 뉴욕과 LA 왕복 비행기 티켓 6천만 장의 CO<sub>2</sub> 배출을 감소하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휘발유 차량을 타고 칼국수를 먹는 사람과 하이브리드차를 타고 쇠고기를 먹는 사람의 CO<sub>2</sub> 배출 가스 비교를 한 결과 거의 두 배 이상 육식을 하는 사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육식을 줄이거나 끊는다면 5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동의 아사餓死를 지금 당장 막을 수 있고(식량의 50%가 가축 사료로 소비) 물 부족 문제(물 소비의 70%가 가축과 연관), 핵발전소 문제, ADHD(주의력 결핍장애와 과잉행동증후군)와 학교 폭력, 심지어 갈등과 전쟁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내 몸을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 인류와 미래의 운명에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과 평화 그리고 공존과 지속적 발전을 바라고 우리 자녀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길 원한다면 채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가치를 미리 예측했을까요? 약 250년 전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의무이며,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라는 말을 남긴 벤자민 플랭클린의 어록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세계적 영장류 학자인 제인 구달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되거나 최소한의 고기만을 먹는 일이다.’라고 호소합니다. 그 밖에 수많은 선지자와 위대한 선각자들은(아리스토텔레스, 간디, 틱낫한, 에디슨, 아인슈타인 등) 한결같이 육식의 해로움을 경고하고 채식을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전문가들, 특히 한국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지금도 ‘동물성 식품은 완전식품이고 우유 등을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낙농업자의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이고 적색육은 2급 발암물질이다’라는 WHO권고안이 발표되면, 육식 소비가 줄어드는 것부터 걱정하는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육식 소비량은 그리 많지 않아 아직은 팬찮다.’라는 억지 주장이 대세를 이루는 서글픈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서양 식단 때문에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장암과 유방암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식의 증가 때문이라고 계속 보도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이 단지 입맛을 위한 밥상에 오르기 위해 비좁고 더러운 곳에서 키워지다 도살당하는 연간 700억 마리의 동물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이제 외면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불살생(아힘사 Ahimsa)이라는 사랑과 자비의 큰 가르침을 다시 일깨워, 질병과 재난과 불행으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구원하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길 합장합니다. ♣

현미채식 하는 농부의사 임동규  
자연치유 교육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체스평화연대 자문위원, 베지닥터 이사  
저서 : 「내몸이 최고의 의사다」(에디터)





산치대탑



엘로리 석굴



룸비니 마이데비사원



아잔타석굴 전경



간디박물관 앞에서

## 닻네 왓 인디아! (고맙습니다. 인도!)

혜과 / 대교과

우리 화엄행자 26명은 출업을 기념하여, 학감스님과 함께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박 15일간 인도, 네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인도 서부의 엘로라와 아잔타로 시작하여 중부의 산치대탑을 지나 북부의 여러 성지를 참배하고 네팔로 넘어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들렀던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과감히 빼고 보드가야에서 이틀을 머물며 정진하는 것이 이번 순례의 특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지마다 경전이나 부처님의 생애를 읽고, 4대 성지에는 공양을 올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성지에서 수행정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던 것 같습니다.

첫날은 델리박물관의 부처님 진신사리를 참배하였습니다.



쿠시나가르 대열반당



제스투파와 아소카석주



거리축제(드루가 여신)



아잔타 석굴

화려하게 장식된 사리함 위에 있던 부처님 사리는 우리가 상상한 예쁜 유리구슬이 아닌 돌조각과 같은 모습(뼈조각이라고 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리를 그렇게 가까이서 실제로 친견하니 무척 감명스러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며 잠시 앉아보니 고요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엘로라와 아잔타 석굴을 들렸습니다. 바위를 깎아 수십 개의 방을 만든 것도 놀라운데, 그 안의 불상들과 벽화들은 정말로 경이로웠습니다. 당시에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석굴에는 부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과 스님들이 수행하시던 승방이 있었는데,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불을 올렸습니다. 스님들의 경건한 예불 소리가 울려 퍼지자 마음이 출겁고 환희로웠습니다. 예불을 드리고 있자니 운문사에서 새벽녘에 많은 스님들이 다 함께 예불을 하는 것이 떠오르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 감사하고 스님들이 수행하는 훌륭한 도량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많은 스님들이 도량에 계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예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다기야 부처님



사르나트 다메크 스투파

셋째 날은 아쇼카 대왕이 사랑하던 여인을 기리기 위하여 만들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산치대탑에 갔습니다. 아쇼카대왕의 아들, 딸이며 남방으로 불교를 전한 두 사람, 마헨드라 왕자와 상카미타 비구니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쇼카 대왕이 태자시절 만난 인연으로, 아들이 후일에 아쇼카 대왕을 찾아오게 되는 재미있는 설화도 있었습니다. 중앙의 동그란 큰 벽돌 탑에는 계단과 난간이 있고 그 탑의 동서남북에는 부처님에 관한 아름다운 조각이 새겨져 있는 커다란 석문이 서 있었습니다. 기단에 반쳐진 반구형半球形 돔은 ‘안다’ (anda) 혹은 ‘가르바’ (garbha)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안다는 ‘일’, 가르바는 ‘자궁’이라는 뜻으로, 생명의 근본이자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산치대탑과 그 주위의 사원, 승원들은 그 당시 남방불교 포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드디어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첫 번째 성지는 사르나트, 녹야원이라고도 하는 부처님의 5비구 초전법륜지이며 불법승 삼보가 형성되고 최초의 승가가 생겨난 곳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다보니 찬찬히 둘러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사르나트 박물관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을 만나서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드디어 보드가야의 대탑에서 보드가야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대탑과 부처님은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의 기쁨이 어떠했는지 느낄 수 있을 만큼 장엄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수많은 스님들이 대탑 주위에서 수행을 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심이 충만하였습니다. 예불과 공양을 올리고 각자 나름대로 적당한 장소에서 정진을 하였습니다. 이틀간 절을 하고 경을 읽고 좌선을 하며 보드가야에서 충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전정각산에서 유영굴을 참배하고, 수자타 아카페미를 방문해 보시금을 전달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라즈기르에서는 나란다 대학, 영축산, 빔비사라 왕 감옥터, 죽림정사를, 바이살리에서는 대림정사와 초기사리탑, 캐사리아 대탑을 참배했습니다.

가이드로부터 나란다 대학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1학년과 2학년이 한 건물과 한 방을 쓰고 그 건물 옆에 최고 상반스님이 거주했다는 설명에 운문사와 같은 체계에 흥미로웠습니다. 운문사의 우리 스님들의 생활이 인도에서부터 전통이 있다니 역사와 전통이란 것은 무시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쿠시나가르의 대열반당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께 가사를 덮어 드리고 부처님 어깨에 금박을 입히며 꽃을 공양 올리자니, 정말로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듯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질 무렵, 열반당의 고요함과 편안함은 부처님의 열반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마 성지 중 가

장 편안한 곳이 열반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또 쇠라바스티에서는 기원정사와 앙굴리마라 교화탑, 수닷타 집터, 천불화현탑 등을 참배했습니다. 기원정사의 여래향실에서는 스님들이 가득 앉아서 좌선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자취를 느껴보고자 하는 마음에 발걸음이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질 즈음 기원정사 가득 초를 켜니 아름다운 정사의 모습에 훈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은 인도 쪽의 카필라성을 참배하고 부처님의 탄생지가 있는 네팔로 넘어갔습니다. 룸비니에는 방문객들이 이미 많이 있어서 여유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었습니다. 룸비니 근처에는 아직까지 아쇼카 대왕이 허물지 못한 유일한 초기사리탑인 람그람, 과거 부처님들의 탄생지 등 참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룸비니에서의 일정이 너무 짧아서 아쉬움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순례 가게 되면 꼭 룸비니에서의 일정을 넉넉하게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와암보나트 사원



부다기야 대탑



부다기야의 소녀



갠지스강 일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부다나트 탑과 스와암부나트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카트만두는, 원래 호수였는데 문수보살님께서 물을 빼고 만들어 준 땅이라는 신화를 가지고 있고, 그 뜻조차 ‘스스로 일어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트만두의 원주민이 석가족이었다는 설명을 들으니 카트만두가 성스러운 땅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진의 피해로 부다나트와 스와암부나트의 탑에도 손상이 있었고 카트만두 사람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졌다는 이야기에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정치 경제도 불안하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에 돈을 벌려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고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단하지만 행복한 네팔에 깊은 인상이 남았습니다.

다녀오니 이제 곧 졸업이라는 것이 실감이 남니다. 성지 순례의 경험의 저희들이 수행하는 폐 큰 힘이 되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운문사의 어른스님과 대중스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애써 주신 학감스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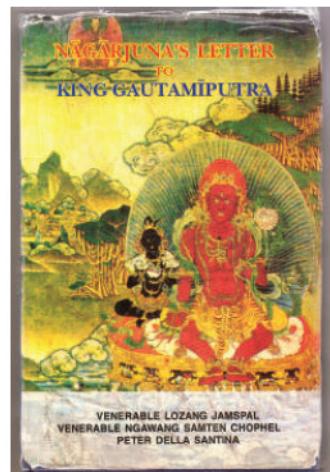
부처님 성지를 순례한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

## *Nāgārjuna's Letter to King Gautamīputra* 왕 고따미뿌뜨라를 위한 나가르주나(용수보살)의 편지

자용 / 운문사 한문불전 대학원

필자가 처음 인도 델리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지 않은 빠알리어와 빠알리 문헌을 공부하였다. 하지만 중간에 부득이한 이유로 과목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티베트어와 티베트 문헌이었다. 그 때 나가르주나의 공사상을 일부 배우고 난 후 이 책,『*Nāgārjuna's Letter to King Gautamīputra*』를 역시 공부했었다. 이 책의 산스크리트 원제목은 〈The Suhṛllekha〉지만 이 원문은 현존하지 않고 필자가 공부한 영어 번역본은 티베트어 판을 참고로 한 것이다. 123편의 운문으로 구성되어진 이 작품은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부처님의 가르침과 해방으로 가는 불교도의 길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설명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처음 나가르주나의 공사상을 배울 때는 ‘열반도 또한 열반이라고 할 만한 고유한 것이 없다’는 대목에서 몹시도 통쾌하고 명쾌하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 분께 참으로 감사했다. 게다가 반야심경의 공空, § अन्यता(emptiness)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인 것들이 본래의 고유한 성질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얼마나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는지 모른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공관空觀을 가지면 모든 것에 자유로워지면서 또한 무책임해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바로 이 편지 글이다. 요컨대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반듯한 삶은 결국 초월적 자유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나가르주나의 공사상이 절대적인 진리를 표현했다면 그의 이 편지글은 관습적인 진리, 인과법因果法, 중선봉행衆善奉行하는 수행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뜻이나 수행이 좀더 깊은 이들이 마침내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 일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는 절절한 충고서이다.





필자가 그린 탱화 '백색 띠리보살상'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부분은 나가르주나가 왕을 비롯한 모든 불교 수행자들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을 격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부분은 '직접적인 가르침'을 다룬 것이다. 후자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선행의 일반적 수행'을 상세히 거론하고 두 번째는 '윤회에 대하여 강한 혐오감을 낼 것'을 권하며 그 마지막은 '열반의 뛰어난 본질을 깊이 고찰하고 열반에 이르게 하는 길을 수행할 것'을 안내한다. 열반에 이르게 하는 길로 나아감에 '대승의 도'를 수행하여 깨달음의 경지를 얻고 모든 살아 있는 존재들의 이익을 성취할 것을 강조한다.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을 격려' 함에는 왕에게 비록 그의 시가 세련됨이 부족하더라도 신성한 법을 담고 있으므로 마치 현인이 부처님의 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지 지극히 송상하듯이 경멸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왕이 위대한 현인의 말씀들을 좀더 많이 듣고 또 그것들을 한층 더 이해한다는 것은 곧 하얗게 칠하여진 집이 한밤중의 달빛에 의해서 더 하얗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였다.



필자가 그린 '문수보살상'

'직접적인 가르침' 중에 '선행의 일반적 수행'을 보면 불교 수행자들은 불·법·승 삼보와 보시·지계·신들의 존재 등 이 여섯 가지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특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신들의 존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신들은 전생에 도덕적 계율을 잘 지키고 명상을 통한 황홀한 경지의 경험이 많은 까닭에 천상이라고 하는 높은 세계에 태어났으므로 사람들이 이를 보고 스스로의 정신적 질을 높이고 중대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우수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맥락이다. 게다가 십계를 확고부동하게 지키고 대승의 육바라밀을 증진시켜 수행하라고 권한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이 해방으로 이르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구업을 일으키는 말에 대해서는 “정복자께서는 사람들에 의해 소유된 말의 세 가지 종류는 즐겁고(pleasant) 정직하고(truthful) 나쁜 말(wrong)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들은 꿀(honey)<sup>o</sup>나 꽃들(flower) 그리고 오물(filth)과 같은 것이다. 이것들 가운데 그 마지막을 버리라.” 이를 다시 말하면, “달콤한 (기분 좋은) 말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때 그것은 꿀처럼 기쁘게 한다고 들 한다. 정직한 말이 칭찬할 만할 때 그것은 사랑스러운 꽃처럼 아름답다고들 한다. 나쁜 말이 유익하지 않을 때 그것은 배설물처럼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분명하

게 말하여진다. 사람은 기분 좋고 정직한 말에 충실해야 하지만 나쁜 말은 버려야 한다.” 이처럼 부처님과 못 성인들이 그려셨듯이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행복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일반인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일, 특별한 날에 결제를 지키는 일, 마음의 잘못을 없애는 일, 주의 깊음(mindfulness)을 수행하는 일, 인내를 수행하는 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른 수행을 하는 일, 친구들을 가려 사귀는 일, 또 다른 사람들의 배우자에 대한 욕구가 일어날 때 그 욕망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고찰하여 잘 소멸시킬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한 이들은 명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영역에 날 수 있는 품성을 갖춘다고 말한다.

특히 여덟 가지 세속적인 법에 대해 무관심할 것을 권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새겨볼 것들이다. “오 세상을 아는 이여, 여덟 가지 세속적인 법-언음, 웃음, 행복, 불행, 달콤한 말들, 가혹한 말들, 칭찬과 비난-을 똑같이 그대 마음의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야만 한다.” 사실 이 여덟 가지의 공한 성질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이들이 일어나는 순간 지진으로 무너지는 사물들처럼 흔들려 버린다. 따라서 이런 일들에 대하여 무심하여 마음의 평정을 얻는 것이야말로 고菩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또 수행자들은 천상과 해방에 이르는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1)음식은 다만 약이며 2)잠들지 않을 때나 짧은 잠 속에서도 유익한 수행을 지속하며 3)항상 바르게 사랑과 자비와 즐거움과 평정에 대해서 무한히 명상하며 4)수행의 단계에서 고찰, 조사, 즐거움, 기쁨과 고통을 차례로 버려 무심상태가 되도록 집중하며 5) 행위들의 무겁거나 혹은 가벼움을 고찰함으로써 죄들은 버리고 미덕들은 수용할 것이며 6) 다섯 가지 모호함-오만과 후회, 해로운 생각들, 무관심과 즐음, 집착, 그리고 의심-을 버려야 한다고 권한다.

‘윤회에 대하여 강한 혐오감을 낼 것’에는 윤회하는 일이 괴로움이고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야지라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1) 윤회의 불확실성 2) 윤회를 일으키는 존재들의 불만족 3) 몸을 되풀이해서 잊어버리는 것과 되풀이해서 태어나는 것 4) 윤회의 다양한 영역을 통한 높은 단계로의 상승과 낮은 단계로의 하강 5) 죽음 앞에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의 외롭고 덧없는 처지 6) 지옥, 동물, 아귀, 천상의 신들, 이수라 등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경험하는 괴로움 등을 고찰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고도 간절하게 수행하려는 의지를 위해서는 윤회는 불운한 것이라는 견해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열반의 뛰어난 본질을 깊이 생각하고 열반에 이르게 하는 길을 수행할 것’에는 1) 깨달음의 일곱 가지 부문을 수행할 것 2) 열반은 평온과 통찰력의 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리킬 것 3)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공론空論을 벼릴 것 4) 사람을 윤회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연기법緣起法을 이해할 것 5) 평화를 얻기 위하여 거룩한 여덟 가지 바른 길(八正道)을 명상할 것 6) 네 가지 거룩한 진리들을 고찰할 것(사성계) 이 지식에 의해서 존재들이 오욕의 강을 건너기 때문에 이 진리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인 것이다. 7) 열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 것.

따라서 수행자는 안으로는 모든 것의 *Sūnyatā*(空; emptiness)적 본질에 대한 깊고 세밀한 통찰을 하고 밖으로는 위의 편지글에서 말한 모든 행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감사하는 기쁨과 더불어 *Metta*(慈悲; compassion)를 끝없이 행하되 이미 공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 자비이므로 행하되 행한 바가 없는 것이 되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완벽함인가! 이는 곧 지혜에 이르는 길이다. ♡

## 청년을 끌어앉히는 사회

“난 어떤 것도 꿈꿔본 적이 없어  
인생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온 거야”  
영화 ‘차가운 장미’ 중에서 풀의 대사

아무리 많은 규칙이 있다한들 결국은 더 빨리,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방편일 뿐이다. 이익, 속도, 편리함에만 방향이 맞춰진 우리는 더 이기적이다. 다양한 가치가 아닌 일방향의 가치관 속에서 자신만의 무언가를 찾지 못하고 무한경쟁에 매몰되는 것이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살 일이다. 남들과 다른 자신을 존중하고, 믿어야 한다. 성인이 되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시급하다. 그 이상은 꿈을 향해 나아기도록 독려하고 희망을 주는 분의기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혼밥혼술! 젊은이들이 고독을 즐기는 시대인가?

20~30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은 ‘나홀로족’이라고 생각한다. 혼자 밥 먹다 못해 술도 혼자 먹고, 영화, 노래방은 물론, 심지어 쉬는 날은 휴대폰을 끄고 혼자 호텔에서 쉬는 혼ител족도 있다하니 무엇이 이들을 이리도 각각 놀게 만드는 걸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520만 3000가구, 25년 사이 5배가 증가한 숫자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인주의와 비교의식 그리고 돈 때문에 함께 어울리는 것도, 결혼도, 출산도 모두 꺼리는 셈이다.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는 원인에 대해,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44%)에 이어 경제 불황과 청년실업증가가 각각 19.8%, 8.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미혼남성의 10.9%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득이 적어서’라고 답했다. 대학 등록금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고,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꼬박 저축한다 해도 집 한 칸 장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 파이낸셜뉴스 ‘통계, 그래픽을 통해 본 한국 사회’)

재정적 독립 없이 정신적 독립을 말하기 힘들다. 물질을 빌미로 자립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는 아비하다. 환경이 그러하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더 이상 과거의 대가족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거나, 전제적 사고 방식 등을 강요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1인용품만 불티나게 팔리고, 물건 파는 기업에게만 호기로운 듯싶다.

청년들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가? 무엇을 잘

하는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꿈과 목표를 상실한 이들에게 종교는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얼마 전 다녀온 인도에서의 일이다. 말이 도로지 자동차, 오토바이, 럭셔, 사람, 동물 등등 모두 뒤섞여 차선조차 없고 서로서로 잘 가겠다고 한소리씩 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과 먼지, 바닥엔 갖가지 쓰레기와 동물 배설물… 혼란 그 자체였고 이곳이 지옥일까도 싶었다. 그러나 하루 이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곳의 무질서가 오히려 평화로움으로 느껴졌다. 특별한 규칙이 없으니 제한이나 벌칙도 없고 서로를 봐가면서, 시간이나 속도에 얹매이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밌었다. 누가 죽어나가도 모를 만큼 영망인 듯 보여도, 사고 하나 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다. 물론, 이기적으로 벌어놓은 쓰레기가 산을 이뤄도, 누구 하나 희생하여 치우지 않는 게으름을 좋게 볼 생각은 없다. 넘어설 수 없는 신분, 계급의 문제가 있다고는 해도 무질서가 불편한 건 사실이다.

우리네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리 많은 규칙이 있다한들 결국은 더 빨리,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방편일 뿐이다. 이익, 속도, 편리함에만 방향이 맞춰진 우리는 더 이기적이다. 다양한 가치가 아닌 일방향의 가치관 속에서 자신만의 무언가를 찾지 못하고 무한경쟁에 매몰되는 것이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살 일이다. 남들과 다른 자신을 존중하고, 믿어야 한다. 성인이 되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시급하다, 그 이상은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희망을 주는 분의기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려려면 학벌, 돈, 명예, 지위 등 기준의 가치에 철저히 반발할 수 있어야 한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생명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환경을 존중하며, 관계 속에서만이 내가 있음을 여실히 알아서, 내게 하듯, 남에게도 성의껏 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밖으로 밖으로만 향하던 눈을 돌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바뀌지 않는 것이 없다. 다양하고 새로운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좀더 긍정적으로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새로운 흐름을 창조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Trust is god, 믿음이 신이다. 간디의 말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코끼리든 소든 나무든 남자든 여자든 믿는 것은 신이 되고, 신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무궁무진하다.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나만의 고유함을 믿고, 상대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여행의 끝자락에 방문했던 로터스 사원은 모든 종교인 누구나 들어와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삶 자체가 신앙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종교를 떠나 누구나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인종 국적 나이 성별을 초월하겠다는 뜻 같아서 참 반가웠다. 이름처럼 연꽃을 피우는 것이다. 험한 진흙에 뿌리내리고 있지만, 황홀한 아름다움으로 피어난다. 아니 연꽃은 진흙이 아닌 1급수 맑은 물에서 자라지 않는다. 어쩌면 연꽃의 아름다움은 진흙이라야 가능하다.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안타깝게 여기는 보살처럼, 진흙 같은 현실을 꾸준히 정화하는 연꽃 같은 개개인이 되어 보자. ♡

## 운문소식



▲ 오백전 기도입재



▲ 회주스님 평전소설 봉정식 및 제45회 총동문회



▲ '나한신앙과 역사' 한국정토학회 학술대회



▲ 치문반 스님 논강



▲ 최재목 교수님 특강

- 9월 3일 가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4일 오백전에서 '오백나한님과 함께하는 100일간의 수행' 기도입재가 있었고, 대웅전에서 진광 주지스님의 입재법문이 있었습니다.
- 9월 6일 회주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 전원이 영화 '아버지의 땅' 을 관람하였습니다.
- 9월 14일 송편 빚기 대중율력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5일 추석을 맞아 차례를 지내고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9월 20일 회주스님 출가65주년 기념 평전소설 봉정식 및 제45회 총동문회가 선열당에서 있었고, 많은 내빈들과 동문스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 9월 22일 화엄반스님들의 졸업여행을 위한 신중기도가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6일 '나한신앙과 역사'를 주제로 한국정토학회 제19차 학술대회가 선열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진 학장스님의 '청도 운문사의 나한신앙 고찰' 발표를 시작으로 여러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많은 청중들의 운집으로 열기를 더했습니다.
- 9월 29일 치문반스님들의 첫 논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강사스님들과 화엄반스님, 사교반스님들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격려하였습니다.
- 9월 30일 가을철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열렸습니다.
- 10월 3일 동화사에서 열린 숭시 범고대회에 화엄반 무진 스님, 사교반 휴경 스님, 송연 스님, 사집반 영현 스님, 자윤 스님이 참석하여 2위로 수상하였습니다.
- 10월 5일 ~19일 운산 학감스님과 53회 졸업예정인 화엄반스님들이 14박 15일 일정으로 인도네팔성지 순례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10월 7일 사집반스님들이 진관사 수록재에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9일 중구일제重九日祭가 조사전에서 있었습니다. 손대장군, 김대장군 후손 60여명이 동참하였습니다.
- 10월 28일 가을철 첫 自恣가 있었고, 화엄반스님들의 성지순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 10월 30일 최재목 교수님의 특강 '무를 통찰한 자유의 사상가 장자'가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31일 청도군 주최로 화랑정신교육에 관한 세미나가 선열당에서 열렸습니다. 일진 학장스님께서 명상에 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 11월 1일 ~3일 제따와나 선원장 일묵 스님의 청정도론 강의가 대학원 특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11월 4일 대만 역경대학에서 20여분의 교수님들이 학생 교류 및 협력 방안 논의 차 운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11월 5일 수월 관음에 대한 강우방 교수님의 특강이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13일 가을철 종강입니다.

## 도와주신 분

- 정해옥
- 마산여래불교사
- 김명원
- 이기태
- 신행부
- 김관성
- 최희영
- 동혜
- 이복자
- 정연식
- 현덕스님
- 서보현행
- 나동희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인도 간디박물관

## 내 안의 행복을 찾아서

기도는 부탁이 아니다. 영혼의 갈망이다.  
이는 자신의 약함을 매일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도하는 자가 마음이 없는 말보다는,  
말이 없는 마음을 가졌을 때 더욱 빛나는 것이다.

종교들은 똑같은 한 지점에 집중된 다른 길들이다.  
똑같은 목적에 이른다면 다른 길을 택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인가?

모하나스 카람찬드 간디(1869~1948)  
『내 안의 행복을 찾아서』 중에서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